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3. 10. 23(수),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 석 자 : 김학범, 류제헌, 박양우, 백인성, 이광춘, 이은희
이상필, 이홍식, 이재근, 정종수, 이두표, 양경모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내 교량 건설	공개
2	「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밀양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	공개
3	「보길도 윤선도 원림」내 문학관 건립	공개
4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 건물 신축	공개
5	「독도 천연보호구역」내 독도 표석 설치	공개
6	「전주 삼천동 곰솔」주변 건축물 증축	공개
7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8	「광주 환벽당 일원」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공개
9	「청송 주산지 일원」 내 저수지 수문 및 관로 보수 정비	공개
10	「태백 검룡소」내 생태 탐방로 등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신청	공개
11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선착장 조성 및 생태탐방선 운항	공개
【검토사항】		
12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1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3-10-01

1.「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내 교량건설

가. 제안사항

「한강하류재두루미 도래지」내 교량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내 교량(파주대교) 건설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도로공사사장(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일원

○ 지 정 일 : 1975.2.21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교량 건설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일원 공유수면

○ 사업내용

구 분	위 치
교량형식	○ 상부 : 콘크리트 충전 강합성 거더교(슬래브 콘크리트, 거더 : 강재)
길 이	○ 총연장 : 1,830m(김포시구간:800m, 파주시구간 : 1,030m)
경간장	○ L=80+(2@90)+(110+9@150+110)=1,830m(최대경간장 150m)
폭 원	○ B=24.3m
높 이	○ 방호벽 : 1.0m, 상판 : 4.0~7.0m, 수면~상판하부 : 9.6~12.6m
시공방법	○ Barge선 및 Heavylifting 공법을 이용한 대블럭 일괄가설공법 -> 수상작업으로 가도 및 가교설치를 최소화하고 공사기간 단축

○ 사업기간 : 허가일～4년(48개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교량 건설 위치는 한강하류재두루미 도래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량 건설에 따른 재두루미 서식지 침해위협 및 차량운행시 재두루미 채식활동 방해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13.10.10)

<***위원*>

○ 현재의 사업계획안은 한강 도래지의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노선으로서, 한강재두루미 도래지의 생태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됨.

○ 한강재두루미 도래지와 한강하구의 습지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천연생태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장소로서, 반드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함.

○ 현재의 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도로계획으로서, 한강 하구지역이 현 상태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위원>

○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는 전 세계적으로 6,500여 개체만 잔존하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으로, 우리나라에는 겨울철 1,400여 개체가 도래월동하고 있음

○ 본 한강하류 문화재구역 일대에는 10%에 해당하는 140여 개체가 월동하고 있으며 봄철 이동기에는 500여 개체가 관찰되고 있어 본 문화재 구역은 재두루미의 월동지 및 중간기착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해당함

○ 따라서 본 구역은 원형보존을 통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해야할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 본 사업은 문화재 지정구역의 중간부분을 가로질러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영향 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재두루미의 서식 및 서식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됨

<*** 위원>

○ 서해의 밀물 때에는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한강 하류에 13개의 교각으로 이루어진 교량을 건설한다는 것은 한강 하류 하상의 변화 등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교량 건설은 철새 도래 등 한강 하류 생태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위원>

○ 도로공사에서 제안한 기본설계는 현재 한강하류에 지정한 철새보호구역의 도래지 및 서식지의 이전을 통한 현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교량 및 도로 설치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보호대책 및 효과를 사례조사를 통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 갯벌 및 강하류 상태 보호를 위한 거시적이고 접근과 더불어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경관설계 및 건설재료의 친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기본설계제시가 필요하다.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3-10-02

2.「밀양 월연대 일원」 주변 밀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밀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밀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87호 밀양 월연대 일원
○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용평동 1-0 일원
○ 지 정 일 : 2012.2.8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밀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활성동 등
○ 사업내용 :
- 목적 : 국가하천인 밀양강을 4대강 본류수준으로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여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하천을 생태, 문화, 여가공간이자 지역명소로 활용하는 등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사내용 :
・축제공 L=1,411m
・호안공 L=2,291m(식생블럭 L=1,411m, 게비온매트리스 L=880m)
・하도정비공 L=880m
・하천환경정비공 L=880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 3. 28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및 인접
○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제1구역(원지형보존)

라. 검토의견 (******)

○ 밀양 월연대 일원의 문화재구역 내 하천 지역을 식생블럭 및 게비온매트리스로 하도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연하천으로 형성된 밀양강 자연경관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허용기준 제1구역에 해당하는 제방을 축제하여 차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연대와 밀양강의 자연스러운 문화재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마. 참고자료(*** 의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으로, 사업대상인 하천은 명승 " 밀양 월연대 일원" 과 맞닿아 있는 하천임. 사업대상지 일원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른 1구역(원지형구역)에 해당되므로 현상변경 허가를 요함.

바. 의결사항 : 보류

천기 2013-10-03

3.「보길도 윤선도 원림」 내 문학관 건립

가. 제안사항

「보길도 윤선도 원림」문학관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현지조사후 재심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 문학관 건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완도군수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

○ 소 재 지 :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일원

○ 지 정 일 : 2008.1.8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보길도 윤선도 원림」 문학관 건립

○ 사업위치 : 보길면 부황리 220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사업부지 4,374㎡, 문학관 및 창작실 건립 2동(500㎡)
  - 기획 전시실
  - 세미나 및 문학강연실
  - 문학인 문학집필실
- 사 업 비 : 22.5억원

○ 사업기간 : 허가일~2014. 12. 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고산 윤선도 문학관 건립사업'은 윤선도 원림 유적지의 문학사적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옛 유적과의 관계 규명이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 계획 위치를 변경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현지조사의견('13. 10. 18)

<*** 문화재위원*>

- ○ "윤선도 문학관"을 짓고자하는 건립 위치는 윤선도 원림의 핵심을 이루는 세연정과 낙서재 사이에 해당하는 부지로, 윤선도 원림의 중요한 원림시설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며, 낙서재와 세연정을 연결하는 옛 도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임.
- ○ 따라서 윤선도문학관을 계획 위치에 건립하는 것은 장래의 윤선도원림 복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문학관 건립은 윤선도 원림과 관련이 없거나 영향이 적은 위치에 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학 창작관 기능을 삭제하고, 기존의 정보센터의 기능을 감안하여 문학관의 기능과 규모도 축소하여 짓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은 세연정 남쪽 경작지(밭)에 문학관 1동과 문화창작관 1동을 단층 한옥으로 건립하는 사업임
- ○ 본 신청부지는 고산이 주 거주지였던 낙서재에서 유희 공간인 세연정까지 다니던 길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문학관 건물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문학관 건물신축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유적의 발굴복원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계획 중인 건물의 위치는 세연정을 기존의 마을, 학교, 정보센터와 함께 세연정을 완전히 둘러싸는 형상이 되어 역사문화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바. *** 의견

- ○ 고산 윤선도 문학관은 윤선도선생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고 후세들의 문학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로
- ○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상변경 허가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윤선도원림과 더불어 문화유적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사. 참고자료(사전 현지조사의견 / '13. 6. 6)

<* 문화재위원>**

- ○ 고산 윤선도 문학관 건립사업은 원림 유적지의 문학사적 가치 제고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 ○ 문학관의 건립위치가 원림 입구의 전면에 위치하여 기존의 안내소와 함께 두 건물이 원림을 가로막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이와 함께 방문인들의 임시 거주 목적을 위한 별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관 건물의 건립위치를 현재위치의 동측 또는 남동측으로 가능한 변경시키고, 별관의 건립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 ○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한국의 원림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 지금까지 문헌과 발굴에 기초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유적과 유구가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음.
- ○ 고증이 되지 않은 인공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삼가야 함. 보길도 윤선도 원림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세연정 입구에 비교적 커다란 규모로 숙박 시설까지 포함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아.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3-10-04

4.「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 건물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무태장어 서식지」주변 건물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무태장어서식지」주변 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무태장어서식지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

○ 지 정 일 : 1962.12.3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건물 신축(제2종 근린생활시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번지

○ 사업내용 :

- 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811㎡ / 160.98㎡ / 160.98㎡
- 건축규모 : 1동 1층(콘크리트 구조) / 최고높이 5.15m
- 조경면적 : 133㎡

○ 사업기간 : 허가일~2014. 11.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40m이격/허용기준 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대상지역은 허용기준 1구역(기존규모 재·개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무태장어서식지에 인접해 있어 건축물의 규모·내용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박사 미래양식연구센터/ 현지조사'13. 10.16>

○ 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거, 신청 대상토지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으로서 1구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함이 타당할 것임.

○ 해당지역은 천연기념물 제27호 무태장어 서식지의 상류 수원(담수생태계)에 해당되기에 이 지역의 현상변경은 무태장어의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지역은 한라산의 후배면에 해당되는 곳으로 주변에 위치한 한 습지와 함께 서귀포지역 자연습지 지역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3-10-05

5.「독도 천연보호구역」내 독도표석 설치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내 독도표석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독도 천연보호구역」내 독도 표석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독도 표석설치 추진경과

- '53.10.14. : 조선산악회(현 한국산악회) 학술조사단 최초 설치
  · (문구) 독도, 獨島, LIANCOURT, (재질) 화강석(60*25*45cm)
- 1959년 : 사라호 태풍으로 유실
- '05. 8.15. : 복원제작
  · 경북 독도수호대책본부 문제점(LIANCOURT 독도 영문표기) 제시
- '08. 8. 1. : 표석 제거('08.7.28. 철거 현상변경 허가)
- '09. 9.11. : 독도 표석설치 허가(LIANCOURT 삭제)
- '10. 7.20. : 표석설치사업 **허가 취하**

* 동도 정상에 한국산악회 표석 1기 존재(한국 韓國)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발명계독도개발지원운동본부)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지 정 일 : 1982.11.16.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독도 표석 설치

○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동도 울릉군표지석 좌측)

○ 사업내용 : 독도표석 설치(60*20*45cm)

- (전면) (후면)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독도관련 민간단체에서 독도표석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설치목적, 위치, 규모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독도 표석 설치 신청은 2009년 허가되었던 사항으로 문제가 제기된 단어 “LIANCOURT"를 삭제하고 동일하게 설치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됨

○ 2009년 허가 당시 위치를 가시권과 다소 떨어진 동도 좌측을 지정한 바 있어 이를 참고로 동일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의견>

○ 본 표석은 1953. 10. 14 조선산악회(현 한국산악회)에서 설치 후 2005. 8. 15 복원 제작하였으나,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의 문제점 제기로 2008. 8. 1 제거한 상황임. 문제가 되었던 "LIANCOURT"의 단어를 삭제하고 복원한다면 독도의 역사를 되찾고, 선조의 독도수호정신을 일깨울 것으로 판단,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을 허가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천기 2013-10-06

6.「전주 삼천동 곰솔」주변 건축물 개축

가. 제안사항

「전주 삼천동 곰솔」주변 근린생활시설을 개축(2층→3층)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주 삼천동 곰솔」주변 근린생활시설(2층)을 3층으로 개축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55호 전주 삼천동 곰솔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732-5번지

○ 지 정 일 : 1988.4.30.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개축(2층→3층)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번지 외 3필지

○ 사업내용 : 건축물 개축

- (기존 2층) 높이 10.95m, 건축면적 732.37㎡(삼성디지털프라자)
- (개축 3층) 높이 16.8m, 건축면적 800.66㎡(1층·2층 판매점, 3층 사무소·수리점)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m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2층이하, 최고높이 8m(평슬라브), 12m(경사지붕))

라. 검토의견 (******)

○ 신청내용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주변 건축물들의 현황 및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조사 의견 / '13.10.15.)**

<*** 문화재위원>

○ 본 신청건은 천연기념물 전주 삼천동 곰솔 보호구역의 우측 일부에 직접 인접한 1구역의 필지로, 3층(16.8m) 신축의 경우 기존 허용기준인 8m의 두배가 넘는 건축물의 층고로 인해 곰솔 보호구역 내부에서 바라보는 주변 조망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신청건은 도로방향에서는 천연기념물 곰솔 보호구역과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본 신청건의 현상변경을 허용할 경우, 향후 곰솔 보호구역에 직접 인접한 필지의 현상변경 신청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부가적으로 천연기념물 곰솔 보호구역의 녹지를 정비하여 보호구역을 좀 더 알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3-10-07

7.「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동일 신청인이 금번 신청지역 인접지인 1814-2번지에 단독주택 신축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인접 지번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가('12.5.24~'13.4.30) : 단독주택 신축(1층, 높이 5.7m, 건축면적 94.9㎡)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616번지 외/제주 한라산 일원
  ○ 지 정 일 : 2002.2.2./1966.10.20.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단독주택(2층)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번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2층, 높이 7.41m, 건축면적 69.93㎡, 경량철골조)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에서 75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기존 건축물 개보수, 기존 규모의 신축·개축·재축)
  - 주변 2구역 내에 1층규모의 주택 및 식당 존재

라. 검토의견 (******)

○ 신청 대상지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75m 이격된 위치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기존 건물규모 개축·재축)에 해당되며, 기존 인접지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높이보다 높게 신청된 건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동 신청내용은 동일인이 2012년 인접지(1814-2번지)에 단독주택 신축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다시 장소를 변경하여 신청한 사항이며, 당시 신청한 건물은 1층(높이 5.7m)이나, 새로 신청한 건물은 2층(높이 7.41m)으로 층수가 높아졌음.
○ 동 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으로 기존규모 유지에 해당되므로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주변 경관유지를 위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3-10-08

8.「광주 환벽당 일원」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광주 환벽당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광주 환벽당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3.03.15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 환벽당 원림」 명승 지정 신청
- '13.07.18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 '13.09.11~10.10 지정예고(의견수렴 "자"항 참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광주 환벽당 일원(光州 環碧堂 一圓)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번지 18필지 일원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환벽당은 사촌 김윤제(沙村金允悌,1501~1572)가 노년에 자연을 벗 삼아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한 남도지방의 전형적인 유실형(有室形)정자로 가까이에는 무등산 원효계곡의 계류가 흐르며 계곡아래 증암천(甑巖川, 창계천) 주변에는 배롱나무가 아름다운 장관을 이뤄 자미탄(紫薇灘)이라 불렀으며, 특히 이곳은 무등산을 비롯한 원효계곡의 줄기를 따라 자연 풍광이 수려한 지역으로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명승지였음
- 환벽당 북쪽으로 2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과 증암천 너머에 송강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이 있으며 환벽당 아래에는 송강과 사촌이 처음 만난 곳이라는 전설이 깃든 조대(釣臺)와 용소(龍沼), 쌍송(雙松)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곳임

- 환벽당을 중심으로 호남시단(湖南詩壇)을 형성하여 한국문학사의 걸출한 불후의 문사들을 배출하고, 당대 명류 문사들과 교류하며 시가문학의 산실과 요람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별서원림임
- 면앙정 송순은 서하당 김성원이 식영정을 건립하고 3년이 지난 뒤 1563년 식영정의 시를 차운하며 '식영정과 환벽당'은 형제의 정자라고 하면서,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을 가리켜 한 동(증암천 ; 창계천)안에 세 명승 즉, 一洞之三勝이라 말함
- 환벽당은 정자, 연못을 비롯하여, 증암천(창계천)의 조대(釣臺), 용소((龍沼), '소나무림과 죽림이 환벽당의 당호처럼 푸르름이 고리를 두르듯'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시가문학과 관련된 국문학사적인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며, 고정원으로서 가치가 우수한 호남의 대표적인 누정문화를 보여주는 곳임
- 환벽당이 위치한 곳은 무등산 북능의 능선으로 북봉을 거쳐 꼬막재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지맥 중의 하나이며, 사촌 김윤제(1501-1572)가 태어난 충효마을 북쪽 200m지점에 있음. 또한 광주와 담양을 경계로 흐르는 창계천(자미탄)을 사이에 두고 남쪽 무등산에서 북쪽 성산에 이르기까지 산들이 고르게 파노라마 경관을 보여주는 선경을 이루고 있음.
- 환벽당 주변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과 송강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 소쇄공 양산보가 살았던 창암촌이 있으며, 이 마을들 주변으로 식영정(息影亭)과 면앙정(俛仰亭), 송강정(松江亭), 은거를 위한 독수정(獨守亭)과 소쇄원(瀟灑園), 환벽당(環碧堂) 등 10여개 정자가 소재해 있어 이 일대가 조선시대 원림 문화의 중심지역으로서 가치가 뛰어남
- 환벽당은 경관이 아름다운 무등산 원효계곡의 계류 옆에 자리한 별서로써 당대 최고의 석학과 시인묵객인 송순, 임억령, 양산보, 김인후, 김성원, 기대승, 고경명 등이 드나들던 곳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시문과 가사를 지으며 풍류 문화의 극치를 이룬 조선시대 사림문화의 별서원림의 중심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 환벽당의 초기모습은 소세양(1486-1562)이 지은 "환벽당"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 1653~1722)의 『南遊日記』를 통해 그 당시의 원림의 식물상과 조경수종을 짐작할 수 있고, 김성원((1525-1597)의 "서하당유고" 에 "성산계류탁열도"등의 그림이 남아있어 인문지리적 가치가 있음
- 환벽당 관련 시·문은 당대의 일류 문인들로서 임억령, 기대승, 송순, 김인후, 소세양, 정철, 백광훈, 고경명, 권필도, 정홍명, 목장흠, 이은상, 이

하곤, 이명한, 김창흡, 조상건, 양경지, 정민하, 서봉령 등 시인묵객의 시가가 전해져 인문학적 가치가 있음

- ○ 문화재구역 : 18필지 / 26,832㎡
- ○ 문화재관리단체 : 광주광역시 북구청

라. 문화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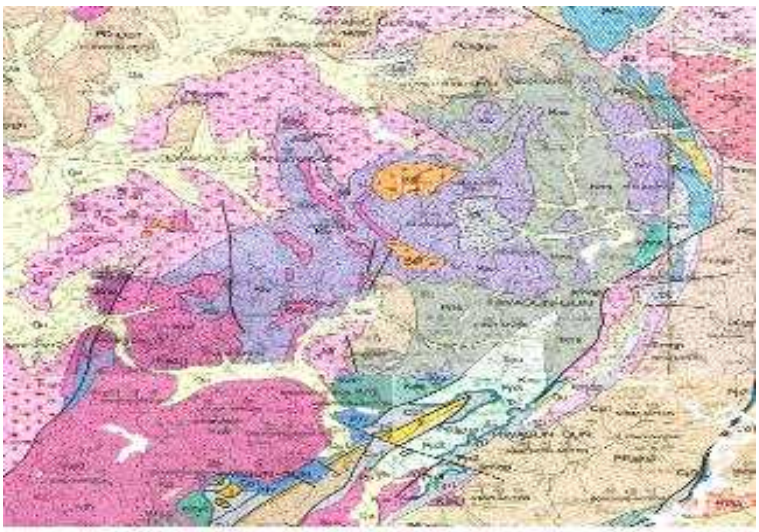
【입지현황】

- ○ 광주의 지리적 위치는 위도상 광주의 가장 동쪽점은 동경 127°00′34″, 북위 35°10′34″로 충효동 비성골의 동부인데, 화순군 남면과의 경계지점임.
- ○ 환벽당 원림 일대는 무등산 북능으로 북봉을 거쳐 꼬막재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능선 중의 하나이며, 무등산 북쪽 원효계곡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창계천(옛 이름 : 자미탄) 옆 사촌 김윤제(沙村 金允悌 ; 1501~1572)가 태어난 충효마을 북쪽 200m지점에 위치함.
- ○ 광주와 담양을 경계로 흐르는 증암천(창계천)을 사이에 두고 남쪽 무등산에서 북쪽 성산(별뫼)에 이르기까지 산들이 고르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음.
- ○ 환벽당 주변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이 있고, 송강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이 있으며, 소쇄원과 식영정, 독수정 등이 소재해 있어 이 일대가 조선시대 원림 문화의 중심지역 이었음을 알 수 있음.
- ○ 환벽당을 찾은 많은 명사들이 이곳의 승경에 탄복하여 많은 시문을 남겼으며, 송순은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을 일컬어 '한 동(증암천;창계천)안에 세 명승(一洞之三勝)'이 있다고 하였음.
- ○ 광주지방은 겨울철에는 주로 서~북서풍에 의한 강설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호남서해안의 기후특성을 보이며, 연평균 기온은 13.5℃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68㎜이고 연평균 습도는 72%정도

【지형・지질 현황】

- ○ 무등산 자락 광주호 위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에 환벽당이 있다. 환벽당은 광주광역시 충효동에 위치하며, 지방기념물 제1호로 지정됨. 환벽당을 끼고 있는 광주호 호숫가에 만들어진 호수생태원은 넓이 18만 4,948㎡의 생태공원으로, 자연생태학습장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호수 안에는 버드나무군락지와 습지보전지역이 있으며 매자기, 애기부들을 비롯한 수많은 수생식물과 다양한 종류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관찰할 수 있는 지역임. 충효마을 입구에는 400년 수령의 왕버들나무가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2012.12.05)으로 지정.

○ 무등산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광범위 한 무등산 권역의 지질은 한반도 크게 선캄브리아 기반암류인 편마암류, 고생대 평안계에 해당하는 퇴적암류, 중생대 화성암류, 중생대 퇴적암류, 백악기화산암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가운데 무등산의 암석은 무등산석영안산암질응회암(구 데사이트), 화순안산암과 도곡유문암으로 구성.



[그림 1] 무등산 일대의 지질분포(KIGAM의 25만 광주, 여수, 목포 도폭 편집)

○ 환벽당은 현재 신생대 제4기 충적층 위에 놓여 있으나 이 일대의 기반암은 주로 중생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생대 화강암류는 각섬석-흑운모화강섬록암, 흑운모화강암, 화강섬록암, 반상화강암, 미문상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화강암류 가운데 소위 광주화강암이라 불리우는 대규모 저반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무등산 서북부의 저지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광주화강암은 흑운모화강암과 화강섬록암의 두 암체를 묶어서 불림.

○ 환벽당의 기반 암석은 중생대 화강암가운데 반상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환벽당과 소쇄원 일대에 분포되어 있음. 이 암체는 주로 중립적 내지 조립질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암상의 특징은 파쇄 엽리를 가지고 있으며 장경 3cm 정도의 반정을 포함하여 반상 석리를 이룬다. 석기와 반정은 우세한 장석의 색깔 때문에 백색 또는 붉은색을 띠우며 유색 광물은 주로 흑운모로 되어 있음. 석영은 장석들과 연정을 가끔 형성하여 미문상석리를 보일 때도 있음. 구성 광물로는 석영, 장석, 흑운모, 녹니석, 인회석, 저어콘 등으로 되어 있음.

【역사문화경관 현황】

○ 환벽당은 평소 자연경관에 관심을 가진 사촌 김윤제가 조선 명종조 1540년대 초에 노년에 자연을 벗삼아 보내고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지은 곳임

○ 환벽당은 원래 사촌 김윤제의 본채 후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원림은 환벽당 앞 아래로 낮은 경사 지형을 그대로 살려 담장을 두르고 원림을 조성하였음.

○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이며, 가운데 2칸을 방으로 하여 앞쪽과 오른쪽을 마루로 깐 변형된 형식임. 원래는 전통적 누정 형식이었으나 후대에 증축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뀜.

○ 화강석을 둘러 연못을 조성하고, 환벽당 뒤로는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대나무숲으로 둘렀으며, 원림의 조성 수종으로는 대나무, 단란, 매화, 동백, 연 등이 있음.

○ 환벽당은 본제가 가까이 있는 '가택분리형 풍류형의 별서'로 원림의 공간구조는 담장 안의 내원과 담장 밖의 가시권에 있는 푸른 물이 흐르는 창계천과 창계천의 용소, 조대 등의 외원, 무등산을 바라 볼수 있는 영향권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환벽당 주위로 소나무와 대나무의 푸르름, 흐르는 푸른 물과 자미(紫薇 ; 배롱나무)와 대비되어 푸르름과 붉음이 항상 단아한 정취를 풍기는 창계천(滄溪川)과, 무등산 경치를 환벽당의 주위를 두루도록 하여 환경(環景) 경관처리 기법을 취하고 있음.

○ 한편 환벽당의 초기 모습은 소세양(1486~1562)이 지은 <환벽당>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序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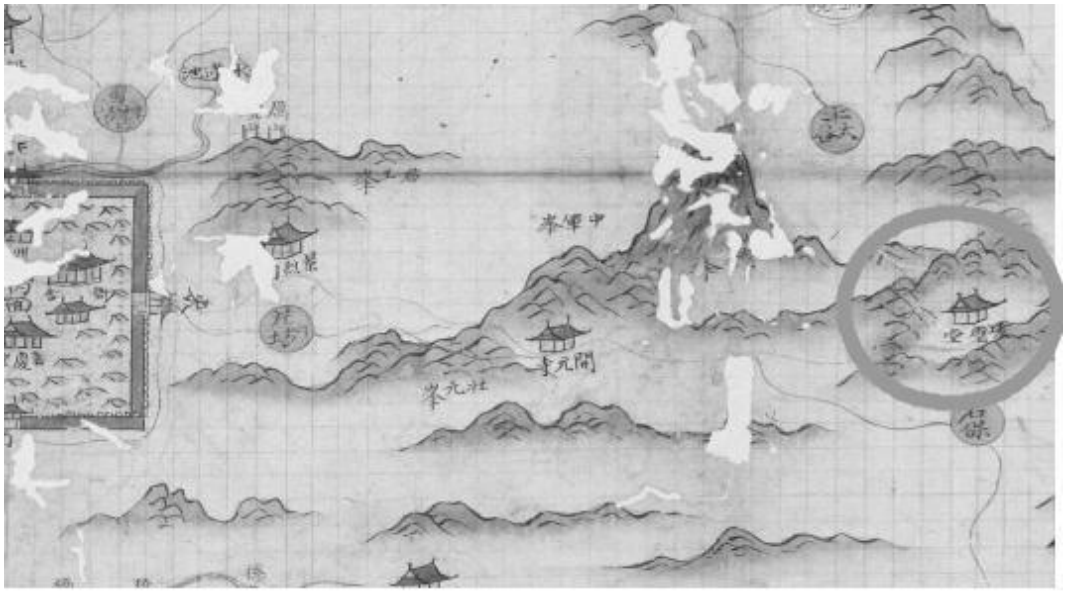
"나주목사 김윤제씨..., 그는 일찍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은 광주의 서석산 동쪽에 있으며, 천석과 죽목의 아름다움이 있다. 시냇가에 대를 쌓았는데, 그 높이가 열 길은 되고 시냇물이 대 아래에까지 이르러서는 휘돌아 모여서 깊은 못을 이룬다. 지금 듣자하니, 공노씨가 이곳을 넓혀서 더 꾸며놓으니 정자가 환하여 그 승경이 더욱 기이하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소세양의 글은 김윤제가 나주목사를 지낸 후에 쓴 것으로 보이며, 위 글을 통해서 김윤제는 벼슬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에 환벽당을 더 넓히고 새롭게 꾸몄음을 짐작할 수 있음.

○ 환벽당의 모습은 1700년대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김창흡(金昌翕)의 『南遊日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원림의 공간 구성과 수종 등을 알 수 있음.

"20일 맑음 벗 양경지와 채지와 택지의 두 아들 이(李)와 정호연이 와서 모여 함께 환벽당으로 갔다. 커다란 대나무 만줄기와 단란(檀欒)의 울창함이 백 이랑이나 되는 언덕에 그림자를 비치었다. 축석하여 낚시터를 만드니, 수백칸은 될 만하고, 지극히 즐길 만하다. 당우는 밝아서 진실로 상쾌하게 살만하며, 집의 서쪽 층계에는 매화와 동백을 심고, 중간에는 작은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어놓아 골골마다 묘함을 더했다. 당에 앉아 못물을 바라보면, 반짝반짝하는 푸른 물결이 대나무 사이에서 생겨난다. 소나기가 얼핏 내리자 소슬한 바람소리가 흥을 돋우기도 한다. 이에 시 한 수를 남기고 돌아간다."

○ 김창흡은 1717년에 호남지방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이때 환벽당도 와서 보고 기행문과 시 한 수를 남겼는데 위 글을 통해 그 당시 환벽당에는

화계(花階)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동백꽃과 매화꽃이 심어져 있었고, 또한 가운데는 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으며, 주변에는 울창한 대나무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 환벽당이 우리나라 전통원림이었음을 말해줌.



[그림 2] 비변사 인(印) 방안지도 상의 환벽당(확대)

[그림 3] 김성원『서하당유고』**성산계류탁열도** (1590년)

○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 1653~1722)의『南遊日記』를 통해 그 당시의 원림의 식물상과 조경수종을 짐작할 수 있음.

○ **계산풍류(溪山風流)·시가문화(詩歌文化)** :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 빈번히 일어난 사화로 인하여 선비들이 벼슬살이에 환멸을 느끼고 시골로 내려와 경치가 수려한 곳에 누정을 짓고 자연과 벗하며,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을 논하고 즐기던 조선시대의 고급문화를 형성하였는데, 무등

산 일대와 담양 창평을 중심으로 수많은 누정들이 지어졌으며, 환벽당은 담양 소쇄원과 식영정, 송강정, 면앙정 등 그 중 계산풍류와 시가문화를 발전시킨 산실임.

○ 사촌 김윤제는 송강 정철과는 외손녀 사위로 인척관계이며, 김윤제(金允悌)가 교유한 사람들은 송순(宋純), 임억령(林億齡), 김인후(金麟厚), 소세양(蘇世讓), 양산보(梁山甫) 부자, 양응정(梁應鼎), 기대승, 김성원, 정철(鄭澈), 고경명(高敬命), 삼당시인으로 이름난 백광훈(白光勳) 등으로, 이들 대부분은 호남사림으로 기묘사화(己卯士禍)와 을사사화(乙巳士禍)를 거치면서 시대의식을 함께 했으며, 환벽당에는 당대의 최고 문사들이 찾아와 시단을 형성하였음.

※ 계산풍류(溪山風流)의 발전

- 무등산에서 뻗어 내린 다른 계곡과는 달리 원효계곡은 일찍부터 전대의 사찰문화를 누르고 새로운 사림문화를 일으켜 세웠다. 소쇄원(瀟灑園), 식영정(息影亭), 환벽당(環碧堂), 취가정, 풍암정(楓岩亭), 명옥헌(鳴玉軒), 송강정, 면앙정(俛仰亭)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정자(亭子)와 원림(園林)이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탓에 이곳을 '정자문화권' 또는 '가사문학권'이라 불러왔다. 그러나 이곳은 자연을 음풍농월하고 시문의 창작에만 치우쳤던 곳이라기보다 당대 지식인들의 총체적인 문화 활동의 장소로서 계산풍류(溪山風流)의 산실이기도 하다. 우리시대에 와서 풍류라 하면 으레 전문 기능인들의 여흥이나 질펀한 흥취를 떠올리게 되었지만 옛 시절의 선비들에게 도학과 문예를 겸비한 도량으로서 자연속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완성해 가는 행위의 모든 것을 마땅히 풍류라 불렀다. 계산풍류란 이곳 원효계곡에 머물렀던 은둔지사들의 총체적인 삶을 아우르는 말이다.
- 계산풍류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하다가 30대에 연산군의 학정을 만나 고향에 내려온 지지당(知止堂) 송흠에서 처음 시작된다.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 면앙정(仰亭) 송순(宋純)이 송흠에게서 학문과 문학을 배우면서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면앙정의 제자로서 소쇄원에 주로 머물렀다. 대사성을 지낸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은 양팽손의 아들로 계산풍류의 일원이었는데, 송강(松江) 정철(鄭澈,),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과 같은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한다. 가장 한국적인 정취가 어려 있는 정원이라고 평가되는 소쇄원을 세운 인물은 양산보(梁山甫)이다. 그는 조광조의 문인으로서 기묘사화에 벼슬을 단념하고 고향에 내려와 소쇄원을 세웠다. 양산보는 면앙정 송순과는 인척간의 아우이고, 하서 김인후와는 사돈 간이다. 고봉 기대승, 제봉 고경명, 백호(白湖) 임제(林悌),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과 같은 당대의 일급문사들이 계산풍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모여서 자연의 풍광을 예찬하고 시를 짓고 고금의 학문을 논하는가 하면, 나라를 걱정하였다.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후일 사림들의 상소를 통해서 조정에 반영된다.
- 16세기 호남의 기라성 같은 문사들의 모임인 계산풍류의 중심무대가 소쇄원이었다면, 그 좌장격은 바로 송순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고위관직을 역임하면서도 그 학문과 인품으로 인해 91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호남문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는 가사는 그가 면앙정을 보며 남긴 글이다. 송순 밑에서 김인후, 임억령, 고경명, 정철, 임제, 양산보, 김성원, 기대승, 박순 등이 가르침을 받으며 풍류를 익혔다. 그 스승에 그 제자들이었다. 송순이 회갑을 맞이해서 면앙정을 증축하고 제자들에게 '면앙정기'를 부탁할 때,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고봉에게 부탁한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그때가 1553년이니까 고봉의 나이 불과 26세 때였다. 난다

긴다 하는 기라성 같은 선·후배 문사들을 제치고 불과 26세의 고봉이 발탁되었다는 사실에서 고봉이 계산풍류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을 엿볼 수 있다.

○ 고문(古文)·고시(古詩)에 나타난 인문가치 현황

- 환벽당 관련 시로는 임억령의 환벽당을 소재로 한 7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24수가 전하고, 송순의 환벽당 시 2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4수가 있으며, 김인후의 환벽당 시 3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1수가 있음.
- 소세양도 김윤제에게 주는 시 2수와 환벽당 시 5수를 남겼으며, 기대승도 <차환벽당송판부운(次環璧堂宋判府韻)> 1수, 정철도 <차환벽당운> 1수, 백광훈도 <환벽당> 1수, 고경명과 권필도 환벽당 관련시를 각 1수, 이밖에도 정홍명 2수, 목장흠 2수, 이은상 1수, 이하곤, 1수, 이명한 1수, 김창흡 1수, 조상건 2수, 양경지 1수, 정민하 1수, 서봉령 1수 등의 시가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환벽당 옆에 취가정을 경영했던 김만식의 시에도 환벽당을 읊은 시가 4수가 있음.
- 환벽당 대량에는 시문이 적힌 두 개의 현판이 걸려있는데, 하나는 임억령의 '환벽당'이라는 시이며, 다른 하나는 조자이(趙子以)의 한(漢)시인 <有感志懷 : 느낀 바 생각을 시로 읊어>임.
- 임억령의 시는 비온 뒤의 환벽당의 정취를 낭만적으로 읊고 있는 내용으로 임억령이 원림에서 창작한 시는 대부분이 단언하기 어렵지만 신선사상이나 노장사상을 띠고 있으며, 형태는 5언시를 선호했음이 특색이 있음.

○ 환벽당 관련 시와 문장[1)]

1) 송순(宋純, 1493~1582)

부안 군수 김공로가 우연히 환벽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네 수를 장난삼아 주다. 아래 두 수에는 자서가 있다[聞扶安倅金公恭老 來寓環碧亭 戱贈四首. 下二首自敍]

山容水態一時新 산의 모습 물의 자태 일시에 새로우니
賴是今朝得主人 참으로 오늘 아침 제 주인을 얻었는데
惆悵未成携酒過 아쉽게도 못 이룬 건 술통 끼고 찾아가서
臨風終夕岸烏巾 저녁 내내 바람 맞고 갓 삐뚤도록 취하는 일

(『면앙집(俛仰集)』 권3)

---

1) 해석과 일부 해석문 교정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소 박명희 연구원

상사 김성원의 식영정 시에 차운하다 2수[次金上舍成遠 息影亭韻 二首]
때는 가정 계해년(1563)의 가을 주인 김군이 임석천을 위해 새로 이 누정을 지어 주니 석천이 '식영'이라 이름 붙였다.[時嘉靖癸亥秋 主人金君 爲林石川新構此亭 石川屈以息影]

維南多勝地 남도에 명승지 많아
隨處有林亭 가는 곳마다 임정 있어라
我臥村爲企 내가 누웠던 마을은 기촌인데
君居山是星 그대가 가는 산은 성산이로구나
親疏同世分 친소는 세상의 정분과 같고
來往一家庭 오고 감은 가정과 마찬가지
匹馬尋常到 필마를 타고 언제나 갈테니
松關愼勿扃 소나무 사립문 닫아두지 말게

息影與環碧 식영정과 환벽당이
今爲魯衛亭 이제는 형제의 정자 되었네
溪山明似錦 시내와 산은 환하여 비단 같고
第宅列如星 집들은 별처럼 늘어서 있네
自可同風月 절로 풍월을 함께 할 수 있으니
元非異戶庭 원래 집 뜨락 다른 것이 아니라
只憐瀟灑老 다만 안타까운 건 소쇄 늙은이
衰草沒雲扃 시든 풀 속에 구름 닫고 누워있음일세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이 일동의 삼승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때에 소쇄옹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 구절에 옛날을 회상하는 뜻이 있다.[瀟灑園 息影亭 環碧堂 以一洞三勝稱之 時瀟灑翁已歿 故末句有感舊之意云]

(『면앙집(俛仰集)』 권3)

2) 임억령(林億齡, 1496~1568)

공로 김윤제에게 주다[寄恭老金允悌]

一壑客身滯 한 골에 막혀 있는 나그네 신세러니
孤村秋氣還 외로운 마을에 가을 기운이 돌아왔네
胸中千萬卷 가슴 속에 천만 권을 품고 있지만
物外兩三山 세상 밖의 별천지에 묻힌 몸이네
威鳳有時鎩 위엄 있는 봉황새 때론 날개 상한다지만
獰龍誰得閑 사나운 용을 뉘 능히 가둘 수 있으랴
虛客眞我累 허튼 객이 진실로 나를 속박하여
往往落人間 때때로 인간 세상에 전해지는구나

(『석천집(石川集)』 권5)

환벽당에서[環碧堂]

萬山圍處一川橫 만산이 두른 곳에 시내 한줄기 흐르는데
醉後憑軒鶴背明 취하여 난간에 기대니 학의 등이 하얗네
鍾鼎山林元有分 벼슬아치와 산림거사는 원래 분수 있나니
眠前撙酒未宜輕 눈앞의 술잔도 가벼이 여기지 말지어다
夕陽沙際小船橫 해질녘 모래 가에 작은 배가 비꼈는데
布傘如蓮水底明 포산은 연과 같아서 물속까지 비춰주네
衰老縱無兼濟力 노쇠한 늙은 이 몸 세상 구할 힘 없지만
斜風細雨往來輕 비낀 바람과 가는 비속에서 편히 지낸다네

(『석천집(石川集)』 권5)

환벽당 시에 차운하다 경신년 여름에[次環碧堂韻 庚申夏]

微雨洗林壑 가랑비 수풀 골짜기 씻어줌에
竹輿聊出遊 대가마 타고 잠시 밖으로 나가네
天開雲去盡 구름이 흩어짐에 하늘이 열리고
峽坼水橫流 골짜기 벌어짐에 물이 비껴 흐르네
白髮千莖雪 흰 머리는 천 줄기의 눈 발 같고
蒼松五月秋 푸른 솔은 오월에도 가을 느낌이네
飄然蛻蠆穴 표연한 기분은 개미구멍에서 나와서
笙鶴戲瀛洲 피리 불고 학 타며 영주에서 놀아보려네

(『석천집(石川集)』 권3)

환벽당에서[環碧堂]

雨後溪肥沒石稜 비 내리니 시냇물 불어 돌 모서리를 파묻고
觀瀾盡日小窓憑 물결 구경하느라 온종일 작은 창에 기대었네
簷前果熟頭時佛 처마 앞의 과일 익어 때로 머리 부딪치고
階前魚潛手可罾 섬돌 앞 숨은 고기는 손으로도 잡겠네
山澤臞仙面有稜 산택에 사는 파리한 신선 얼굴 튀어 나왔고
松間架屋太虛憑 소나무 사이에 집 지으니 하늘을 기댔도다
從今林壑藏鱗甲 지금부터 숲속에다 비늘과 껍데기 감추리니
不受人間漁父罾 인간 세상 어부 그물에 걸려들지 않으려네
烟氣兼雲氣 연기는 구름 기운과 섞어지고
琴聲雜水聲 거문고 소리 물소리와 섞였네
夕陽乘醉返 석양녘에 술 취하여 돌아오니
沙路竹輿鳴 모랫길 대 가마 삐거덕 삐거덕

(『석천집(石川集)』 권5)

식영정 이십영[息影亭 二十詠](환벽당 관련 시 세 수)

낚시터의 두 소나무[釣臺雙松]

雨洗石無垢 비에 씻기어 돌에는 때가 없고
霜侵松有鱗 서리 맞은 소나무엔 비늘 있어라
此翁唯取適 이 늙은이 오직 뜻한 바 취할 뿐이니
不是釣周人 곧은 낚시 드리우던 강태공 아니겠나

환벽당 아래의 영추[環碧靈湫]

澄湫平沙浪 맑은 늪 모래톱의 잔잔한 물결
飛閣望如船 높은 누각 바라보니 배인 듯하네
明月吹長笛 밝은 달 아래 긴 피리를 부니
潛蛟不得眠 물에 잠긴 용 잠 이룰 수 없네

(『석천집(石川集)』 권5)

환벽당 아래에서 배를 띄우며[環碧泛舟]

野艇載古月 들 배에 옛 달빛 싣고서
沿洄楊柳間 버드나무 사이를 거슬러 오르네
鳴榔誤觸石 빈랑나무 울리다 잘못 돌에 부딪치니
宿鷺起沙灘 사탄에 잠자던 해오라기 놀라 날으네

(『석천집(石川集)』 권5)

3) 김인후(金麟厚, 1510~1560)

경로・공로・언진 제형들에게 삼가 부치다[奉寄敬老恭老彦鎭諸兄]

環碧溪連瀟灑園 환벽당 앞 시냇물은 소쇄원에 닿았는데
江籬香動間蘋蘩 물가 향초 향기 속에 사이사이 마름 뜨리
無端病隔崇朝路 무단히 병이 들어 새벽길이 막혔기에
臥看梅梢月一痕 매화 끝에 걸린 달의 한 흔적만 누워 보오

(『하서전집(河西全集)』 권6)

환벽당에서[環碧堂]1

당은 광주 동쪽에 있는데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당을 그 위에 지어 깊은 연못을 내려다본다. 당의 주인은 김윤제로 자는 공로요, 호는 사촌이다.[堂在光洲東 築石爲臺 作堂其上 俯臨深湫 堂主金公允悌 字恭老 號沙村]

在藻魚知樂 시내 다리 비치는 달 온 몸에 띠고
盈田稻有秋 물 위를 거닐면서 읊조리누나
帶得溪橋月 밴 솔은 산기슭을 의지해 있고
行吟水上游 반석은 강 중류로 뻗어 들어라
亂松依小麓 마름에 잠긴 고기 즐거움을 알고
盤石入中流 밭에 가득 벼 곡식 풍년을 맞네
奇花明醉眠 진기한 꽃 취한 눈에 환히 뜨이니
征馬立芳洲 가는 말을 방주에 멈추었노라

(『하서전집(河西全集)』 권9)

환벽당에서[環碧堂]2

帶得溪橋月 시내 다리 뜬 달빛을 환히 받고서
行吟水上遊 물가 따라 노닐면서 읊고 가나니
亂松依小麓 이솔 저솔 작은 산록 의지했는데
盤石入中流 너럭바윈 물 속에 들어가 있네
在藻魚知樂 마름 있어 물고기의 낙을 알겠고
盈田稻有秋 논에는 벼가 익어 가득 찼구나
奇花明醉眼 기묘한 꽃 취한 눈을 환히 밝히니
征馬立芳洲 나그네 말 방주 곁에 세우고 보네

(『하서전집(河西全集)』 권8)

환벽당에서[環碧堂]3

綠浪粼粼蘸碧天 푸른 물결 맑디 맑아 먼 하늘 잠겼는데
沙邊立馬不知年 모래톱에 말 세운 적 모르괘라 어느해뇨
蓬茅自芘韓公舍 다붓 잔디 스스로 한공집을 덮었다면
松菊猶存陶令田 솔과 국화 오히려 도령밭에 남아 있네
石瀨魚蝦供俯掇 돌 시내 고기 새우 굽어 잡게 마련되고
林柯猿狖失攀緣 숲가지 원숭이들 올라 탈 걸 잃었구려
何當促席軒窓畔 어느 때나 헌창가에 자리를 맞대고서
斗酒相將合自然 말술을 서로 들며 자연에 어울리리

(『하서전집(河西全集)』 권10)

4) 양응정(梁應鼎, 1519~1581)

환벽당과 소쇄원의 승경을 둘러보고 고암자에게 보여주다
[歷賞環壁瀟灑之勝 因示鼓巖子]

環壁堂前乏小舟 환벽당 앞에다 작은 배를 띄웠는데
使君心跡共淸悠 사군의 마음 역시 맑은 물과 같아라
今朝又赴山翁約 오늘 아침 산옹과 약속 있어 달려오니
石下菖蒲灑玉流 바위 아래 창포에서 옥류가 흘러나오네

(『송천집(松川集)』 권1)

5) 김성원(金成遠, 1525~1597)

벽간당에서 송옹의 시에 차운하다 벽간당은 삼사의 시내에 있다.[碧澗堂次松翁韻 碧澗堂 在三槎溪]

席上鳴灘是舊聲 자리에 울린 여울 옛 소리 그대론데
醉魂偏向此中醒 취한 넋이 쏠려가자 이 속에서 술 깨네
沙翁已逝松翁遠 사촌 노인 벌써 가고 송강마저 멀어진 채
舊耳那堪獨自聽 옛날대로 귀 기울여 어이 나만 홀로 듣나

(『서하당유고(棲霞堂遺稿)』)

6) 박광옥(朴光玉, 1526~1593)

계함 정철의 요구에 응해 지은 목사 김윤제의 만장[金牧使允悌輓章 應鄭季涵之求]

淸時攀桂客 청한 시절 급제하여 벼슬하였고
白首弄雛人 흰 머리로 젊은이들 가르쳤었네
歷典留遺愛 지방관을 역임할 제 은혜 끼쳤고
歸休託老臣 은퇴해도 노신으로 자문했었지
芝蘭盈九畹 지초 난초 구원에 가득하였고
琴酒娛佳辰 금과 술로 좋은 때 즐기었다네
忽罷遊仙夢 홀연히 신선세계 놀던 꿈 깨어
飄然脫積塵 표연히 진세를 벗어나셨네

(『회재집(懷齋集)』)

7) 기대승(奇大升. 1527~1572)

환벽당에서 판부 송순의 시에 차운하다[次環碧堂 宋判府韻]

萬古仇池藏小天 만고의 구지 작은 하늘 간직하니
白雲閑影自年年 흰 구름의 한가로운 그림자 해마다 같네
危亭據石非無水 돌 위의 높은 정자 아래엔 물이 흐르고
華屋依林更有山 숲 속의 좋은 집 뒤에는 산도 있어라
不是遨頭甘落拓 오두 되어 쓸쓸함 달게 여긴 게 아니라
應同谷口去夤緣 응당 곡구와 함께 인연 버린 거로세
人生好醜君休說 인생의 곱고 추함 그대는 말하지 마소
且把深盃發浩然 우선 깊은 술잔 잡고 호연지기 발하노라

(『고봉선생문집(高峯先生文集)』 권1)

8) 고경명(高敬命, 1533~1592)

김언욱・채광문・양천심・양득우・김백일・김려 등 제군이 환벽당에서 깃들다가 돌아가려 할 때 짧은 시 한 편으로 소회를 쓰다[梁得遇金百鎰金礪諸君 來栖環碧堂其還 以短律一篇 寫懷]

我是逃空者 남모르게 숨어 살려고 하는데
君爲悅臭人 자네들은 왜 나를 찾아 왔는지
半生攻篆刻 나이는 벌써 반평생이 지났어도
於道蔑涓塵 아무 쓸모없는 헛이름뿐이거늘
旋見垂歸橐 갑자기 모두가 흩어져 가니
無端濕別巾 하염없는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荒詞出肝肺 짤막한 이 시 보잘 것 없지만
應記老夫眞 늙은 나의 심정 짐작하리라

(『제봉집(霽峯集)』 권2)

식영정 20영[息影亭 二十詠](환벽당 관련 시 두 수)

낚시터의 두 소나무[釣暮雙松]
鶴髮映蒼鬣 한 모퉁이의 낚시터 깨끗도 한데
風竿抽素鱗 물고기 가끔 낚시에 걸려드네
二松誰對樹 마주 선 두 소나무 뉘 심었을까

烟雨摠宜人 가랑비 내릴 때 쉴 만하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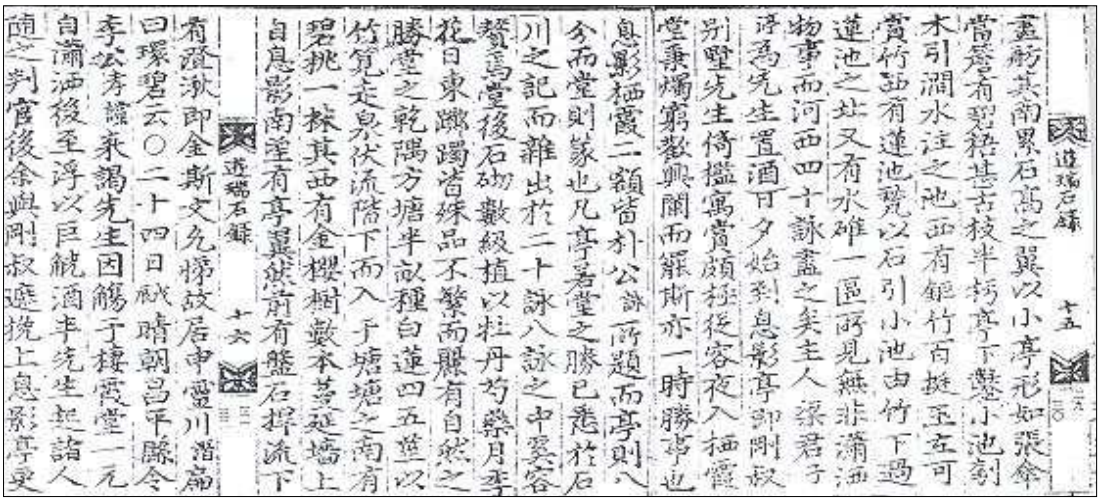
환벽당 아래의 영추[環碧靈湫]
白日喧雷雨 맑게 개인 날에 우뢰가 요란하니
顚風簸針船 낚시 배 바람에 요동을 치네
村翁傳怪事 어떤 노인 놀라며 전하는 말이
石竇老蛟民 바위틈에 이무기 잠자고 있다 하네

(『제봉집(霽峯集)』 권3)

유서석록[遊瑞石錄][2](1574년 4월 23일)

…이날 저녁에 비로소 식영정에 당도했으니, 곧 강숙의 별장이었다. 선생이 난간에 의지하여 한가로이 감상했으며 밤에는 서하당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질탕히 놀다가 흥이 다하매 자리를 파했으니, 이 또한 일시의 거룩한 일이었다. 식영정과 서하당의 두 편액은 모두 박공(이름은 영)의 글씨로서 정자는 팔분이요, 당은 전자로 되어있었다. 무릇 식영정과 서하당의 아름다운 풍치는 이미 석천의 기문에 소상히 실려 20영과 8영 가운데에 섞여 나와 있으니, 이제 어찌 새삼스레 말을 첨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 뒤에는 돌로 몇 계단을 쌓아 모란, 작약, 월계화, 일동, 철쭉 등을 심었는데, 모두 특수한 품종으로서 번화하지 않고 청수하여 자연의 미를 갖추어 있었다. 서하당의 서북방에는 10여 평 되는 연못이 있었는데 4~5줄기의 백련이 심어져 있었고, 대 홈통으로 샘물을 이끌어 뜰아래를 거쳐 연못으로 끌어왔으며 연못의 남쪽에는 벽도 한그루가 있었고 그 서쪽에는 금앵수 몇 그루가 있어 담장 위로 뻗어 있었다. 식영정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날아갈 듯한 정자가 있었고, 그 앞에는 큰 반석이 시냇물을 가로막았으며 아래에는 맑은 웅덩이가 있었다. 이는 곧 김 사문 윤제의 고택으로서 환벽당이라는 편액이 걸려있었는데, 신 영천(이름은 잠)이 지었다고 한다.…[…日夕始到息影亭卽剛叔別墅先生倚檻寓賞頗極從容夜入栖霞堂秉燭窮歎興闌而罷斯赤一時勝事也息影栖霞二額皆朴公詠所題而亭則八分而堂則篆也凡亭若堂之勝已悉於石川之記而雜出於二十詠八詠之中奚容贅焉堂後石砌數級植以牡丹芍藥月季花日東躑躅皆殊品不繁而麗有自然之勝堂之乾隅方塘半畝種白蓮四五莖以竹筧走泉伏流階下而入于塘塘之南有碧桃一株其西有金櫻樹數本蔓延墻上自息影南○有亭翼然前有盤石捍流下有澄湫卽金斯文允悌故居申靈川潛扁曰環碧云…]

2) [遊瑞石錄] : 고경명이 41세 되던 해 1574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당시 광주목사 임훈(林薰)을 모시고 무등산을 오른 감상을 순한문으로 기술한 기행문이다.



고경명『유서석록』환벽당 부분□**원문□**

9) 정철(鄭澈, 1536~1593)

환벽당 시에 차운하다[次環碧堂韻]

一道飛泉兩岸間 한 줄기 나는 샘물 양 언덕에 떨어지고
採菱歌起蓼花灣 여뀌꽃 핀 물굽이엔 연밥 따는 노래하네
山翁醉倒溪邊石 산 노인이 술에 취해 냇가 바위 누웠는데
不管沙鷗自往還 갈매기는 상관 않고 제멋대로 오락가락

(『송강집(松江集)』 권2)

벽간당에 쓰다[題碧澗堂]

碧澗冷冷瀉玉聲 푸른 시내 졸졸졸 쏟아내는 구슬소리
五更秋枕酒初醒 가을 새벽 베갯머리 술 막 깨어 듣자니
沙翁去後增嗚咽 사촌옹이 가신 뒤에 더욱더 목이 매여
風樹興懷不忍聽 풍수지탄 감회 일어 차마 듣지 못하겠네

(『송강집(松江集)』 속집 권1)

식영정 잡영[息影亭 雜詠]

환벽용추[環碧龍湫]
危亭俯凝湛 솟은 정자 깊은 못 굽어보기에
一上似登船 한 번 올라보니 마치 배에 오른 듯
未必有神物 모름지기 신물 있는 것 아니지만
肅然無夜眠 숙연하여 밤에도 잠 못 이룬다네

(『송강집(松江集)』 속집 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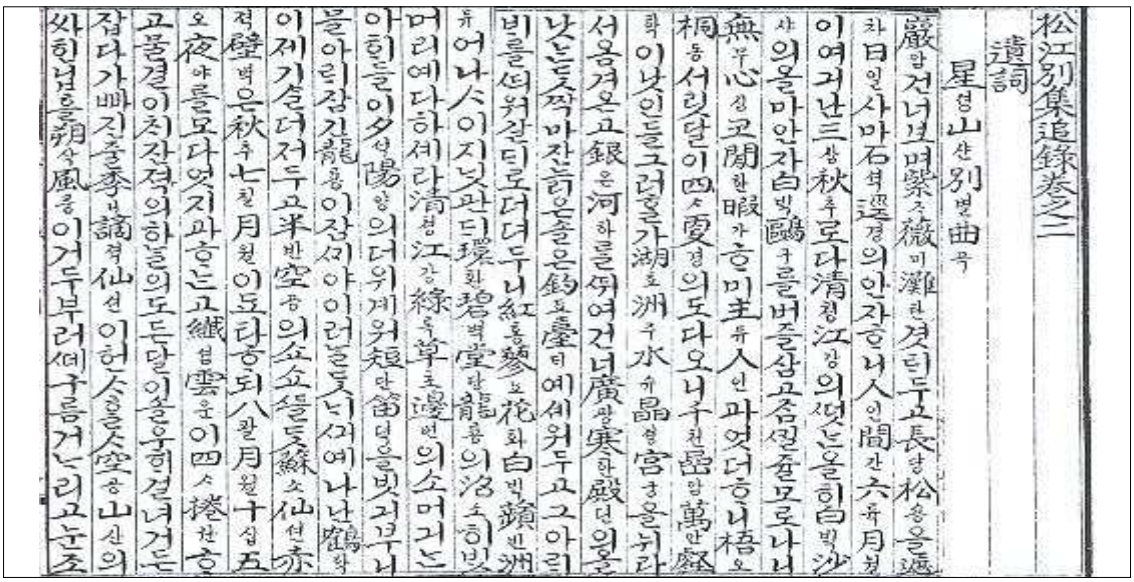
성산별곡[星山別曲](환벽당 부분 발췌)

…오동(梧桐) 서릿 달이 사경(四更)의 도다 오니 천암만학(千巖萬壑)이 낫인들 그러홀가. 호주(湖洲) 수정궁(水晶宮)을 뉘라서 옴겨 온고 은하(銀河)를 뒤여 건너 광한전(廣寒殿)의 올낫는도 짝 마잔 늙은 솔은 조대(釣臺)예 셰워 두고 그 아래 비를 씌워 갈 대로 더뎌 두니 홍료화(紅蓼花) 백빈주(白蘋洲)어나사 진닛관대 환벽당(環碧堂) 용(龍)의 소(沼)히 빗머리예 다하세라.…

(현대어 풀이)

… 오동잎 사이로 가을 달이 사경이 되니 천암만학이 낮인들 그보다 더 아름다우랴. 호주의 수정궁을 누가 옮겨 왔는가. 은하수를 뛰어 건너 광한전에 오른 듯.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조대에 세워 놓고, 그 아래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 붉은 여귀 꽃, 흰 마름꽃, 핀 물가를 어느새 지났기에 환벽당 용소에 뱃머리가 닿았구나.…

(『송강집(松江集)』 별집 권2)



松江別集追錄卷之二
遺詞
星山別曲

정철, 성산별곡 『송강집』 별집 권2 환벽당 부분

10) 백광훈(白光勳, 1537~1582)

환벽당에서[環碧堂]

數曲煙溪淸若空 서너 구비 안개 낀 골 너무 맑아 빈 듯한데
小堂閑夢蒲襟風 작은 정자 한가한 꿈 부들자리 바람 부네
覺來開戶無人見 잠 깨어나 문을 여니 아무도 뵈지 않고
斜日離離映水中 저녁 햇살 뉘엿뉘엿 물속에 어리누나

(『옥봉집(玉峯集)』 上)

금릉에서 회포를 적어 서하당 주인 김성원에게 주다[金陵記懷 贈栖霞主人 卽金成遠] (환벽당 부분 발췌)

君家光山城正東 그대 집(김성원)은 광산의 성 동쪽에 자리하여
瑞石峯帶蒼溪流 서석봉이 둘러 있고 창계 물길 흐른다네
蒼溪之上詢且樂 창계의 물가에서 위문하고 즐겼나니
白波靑嶂眞仙區 흰 물결과 푸른 봉 참신선의 구역일세
瓊樓綺席不敢當 멋진 다락 비단 자리 감당할 수 없겠지만
玉琴瑤瑟陳壺觴 아름다운 거문고에 술자리 베풀 적엔
千松影處月如晝 천 그루 솔 그림자 달빛 속에 그림 같고
一水聲時風入酒 한 줄 냇물 소리 날 제 술잔에 부는 바람
環碧堂前並吟騎 환벽당 그 앞에서 말 나란히 읊조리며
瀟洒園中聯舞袖 소쇄원 그 속에서 소매 이어 춤추었네
此時歡賞心未極 이런 때의 즐거움 마음속에 끝이 없어
勝事重結江南約 강남에서 다시 놀자 거듭 약속 맺었다네
江南詞宗吾石川 강남땅의 사종이신 우리 석천 선생님은
文彩風流今謫仙 그 문채와 풍류가 오늘날의 이백으로
玉堂金馬謝時人 금마 옥당 벼슬살이 당대인께 사양하고
歸來獨與漁蓑親 돌아와서 오로지 어옹과만 친했구나

(『옥봉집(玉峯集)』 하)

11) 송남수(宋柟壽, 1537~1626)

환벽당에서[環碧堂]
琪樹千重一逕通 좋은 나무 천 겹에 한 길이 나 있으니
壑雲松靄映房櫳 골 구름 솔빛이 용소에 비추이네
川光隱見踈林外 일월성 빛 성근 숲에 어른어른 비추고
山勢縱橫落照中 산세는 낙조 속에 종횡으로 뻗혀있네
入戶寒蟾金婀娜 문에 비친 밝은 달은 황금처럼 아리땁고
滿林晴雪玉玲瓏 숲을 덮은 하얀 눈은 구슬처럼 영롱하네
朱門白屋元相隔 부자와 가난은 원래 서로 현격하고
從古閑忙本不同 예로부터 한망함은 본래 같지 않다네

(『송담집(松潭集)』 권2)

12) 이정구(李廷龜, 1564~1635)

이양구가 강변을 순시하러 가면서 환벽당에서 부윤과 이별하는 자리에서[養久往巡江邊 與府尹別於環碧堂]

絶域重相見 먼 외지에서 다시 서로 만나
樽前意更傾 술동이 앞에 놓고 마음 기울이노니
離亭是客路 이정에 모인 우리는 나그네 길
王事共嚴程 나랏일로 함께 바쁜 일정에 쫓긴다
粉堞山樓迥 흰 성가퀴라 산의 누각은 아득하고
春塘水檻淸 봄 못이라 물가의 난간은 맑구나
男兒要事業 남아란 모름지기 사업을 이뤄야지
臨別莫傷情 이별 앞에서 마음 아파하지 말자

(『월사선생집(月沙先生集)』 권7)

환벽당에서 벌어진 작은 술자리에서 입으로 불러서 읊다[環碧堂 小酌口呼]

隱隱蓬萊島 봉래의 섬은 은은하게 보이고
冷冷水伯宮 수백의 궁전은 맑은 모습이어라
池寒春尙雪 못이 차워라 봄눈 아직 남았고
簷豁靜還風 처마 트인 곳 고요한데 외려 바람
晩席繁絃咽 저물녘 자리에는 악기 우는 소리
他鄕勝友同 타향에서 좋은 벗들과 모였어라
歸途荷正發 귀로에는 연꽃이 한창 피었으리니
留興曲欄東 굽은 난간 동쪽에 머물러 흥을 즐기리.

(『월사선생집(月沙先生集)』 권7)

13) 권필(權韠, 1569~1612)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를 술을 마시며 빨리 짓다[君不見 對酒走筆]

君不見思庵朴政丞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사암 박정승은
家居冷落如山僧 집안 생활 영락하여 산승과도 같아라
君不見松江鄭相國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송강 정상국은
百年行己能淸直 평생의 자기 처신이 참으로 청직하여라
豈但寒餓困一生 자신만 빈한하여 일생을 고생할 뿐이랴

復令子孫無地耕　자손들 농사지을 땅조차 없게 했도다
環碧堂虛成草萊　환벽당은 텅 비어 잡초만 무성하고
拜鵑窩破空蒼苔　배견와는 무너져 푸른 이끼만 남았네
洛陽車馬何喧喧　낙양의 거마는 그 얼마나 시끄러운지
紆靑拖紫皆賢才　관복을 걸친 이들 모두 어진 인재로세
爭將毁鄭作階梯　다투어 정을 헐뜯어 계제를 삼나니
誰肯譽朴生禍胎　뉘라서 박을 칭찬해 재앙을 낳으랴
朱門峨峨臨九衢　주문이 우뚝이 번화한 거리에 서 있는데
一夫顧眄千夫趨　한 사내가 돌아보면 천 사내가 굽실거리네
斲來寶玉山岳崩　보옥을 다 캐 와서 산악이 무너지겠고
漉出明珠滄海枯　명주를 다 건져 내어 창해가 마르겠구나
雖傳仍雲億萬歲　비록 후손들이 억만년 길이 이어지도록
金帛爛用無時無　금은보화 아무리 써도 없어질 때 없겠군
君不見體素李翰林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체소 이한림은
半世黃卷爲書淫　반평생 서책에 파묻혀서 서음이 되었어라
君不見五山車秘書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오산 차비서는
欲將詞賦凌相如　사부를 가지고 상여를 능가하려 했어라
文章益富家益貧　문장이 넉넉할수록 집안은 더욱 가난하니
仕路狹窄難容身　벼슬길이 비좁아 몸을 들여놓을 수 없었지
生者飄零趨路傍　산 사람은 영락하여 길가에 다니고
死者埋沒隨埃塵　죽은 사람은 묻혀 먼지 따라 사라졌네
男兒行世別有路　남아의 세상살이에는 따로 길이 있으니
莫把陳編徒自苦　해묵은 서책 가지고 사서 고생하지 말라
翰苑淸深玉堂高　한림은 맑고 깊으며 옥당은 높으니
其中學士多英豪　그중에 학사들은 뛰어난 영재 많으리
花牋彩筆恣揮洒　화전에다 채필을 휘둘러 글씨를 쓰니
觀者焉能辨眞假　보는 이들이 어찌 진위를 가릴 수 있으랴
人生稱意得如此　인생이 뜻대로 되면 이와 같을 수 있느니
班揚燕許爲何者　반양연허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던가
爲酌一杯勸少年　술 한 잔 따라 소년에게 권하노니
榮悴貴賤寧在天　영췌와 귀천은 정녕 하늘에 달렸다네
故知通塞皆自由　그러므로 통색에 모두 자유로움을 아노니
以彼易此知誰賢　저것으로 이것을 바꾸면 누가 어질겠는가
不如是非都兩忘　차라리 인간사 시비를 모두 잊고서
日日醉倒春風前　날마다 취해 춘풍 앞에 거꾸러지는 편이 나으리

(『석주집(石洲集)』 권2)

14) 목대흠(睦大欽, 1575~1638)

환벽당 시에 차운하다[次環碧堂韻]

灣州形勝地 물 좋은 명승지에
樓觀聳亭亭 누대들 우뚝히 솟아있네
俯瞰江潮白 맑은 강물 굽어보고
平臨嶽**埶**靑 푸른 산 마주 대하네
輿圖曾點綴 흥 일면 증점 잇기를 꾀하고
王命慣行經 왕은 관행으로 지내기를 명하네
別構何年月 어느 해에 별도로 얽었느냐
流泉此**滀**渟 흐른 물이 이곳에 머물렀네
晴虹跨碧落 맑은 무지개 하늘을 가로지르고
彩鷁駕蒼冥 고운 익조는 창공을 날아가네
縹緲疑淸漢 아득히 맑은 은한인가 의심하고
泓澄謝濁涇 맑은 물은 흐린 경수를 사절하네
雲煙工作態 구름은 이상한 모양을 짓고
鱗介巧潛形 조개는 공교롭게 몸 감추었네
鶴馭超西海 학을 타고 서해를 뛰어넘고
鵬風捲北溟 봉새는 바람맞아 북명을 거둬오네
群仙齊佩玦 여러 신선 모두 패옥을 찼고
衆樂隱雷霆 여러 풍악은 천둥소리에 묻혀버리네
繞砌粧花艷 고운 꽃은 섬돌 둘러 단당하고
巡簷蠟炬熒 밀랍 횃불 처마를 밝게 둘러있네
韶華供筆硯 봄 경치 붓을 휘두르게 하고
神物護窓櫺 영묘한 물건들 집을 보호하네
軍事看開甲 군사들이 갑옷 헤침 보는 것 같고
衙時問點丁 관아에선 때로 장정 점검함 같네
氓疲蠲重賦 백성들이 피폐하니 무거운 세금 없애고
政簡用輕刑 정치가 간소하니 가벼운 형벌 쓴다네
喜與張槎會 기쁘게 장사와 함께 만나고
欣從鄭驛停 즐겁게 정역을 따라 머무네
憑欄對碧草 난간에 기대어 푸른 풀 대하고

牽纜賞丹萍 닻줄 이끌고 붉은 마름 완상하네
洒落新賢宰 새로 온 어진 원님 깨끗하고
風流舊使星 옛 사신은 풍류스럽네
遊魚慢舞戲 노는 고기 부질없이 헤엄치고
昂馬淨琴聽 머리 든 말 고요히 거문고 듣네
轉眄窮歡謔 눈동자 굴리며 해학을 다하고
聯裾迭醉醒 옷깃 연하여 질탕히 술 마시네
柳堤遊騎住 버들 둑에는 노는 말 멈춰있고
花嶼怪魂馨 꽃 섬에는 괴이한 기운 향기롭네
豈異尋眞境 어찌 진경을 찾음과 다르리요
還堪制暮齡 도리어 만년 제어함을 감내하네
短材三尺朽 짧은 재목 삼척은 썩어가나
長劍十年硎 긴 칼은 십년을 갈았다네
道遠憐騏驥 길이 머니 준마가 그리웁고
情深戀鶺鴒 정 깊으니 할미새 생각나네
閑愁悲落蘂 한가한 수심은 떨어진 꽃 슬퍼하고
素計歎凋蓂 본 계책은 마른 명협 탄식하네
蝶夢迷孤枕 나비 꿈은 외론 베개 혼미케 하고
葵忱仰大庭 해바라기 마음은 부모를 우러르네
才微慙倚玉 재주 작으니 옥 의지함 부끄럽고
力瑣負撞筵 힘 약하니 들보 받침 저버렸네
邊塞多烽燧 변방엔 봉홧불 많고
鄕山長茯苓 고향엔 복령이 자란다네
歸心苦未果 돌아갈 맘 과단치 못함 괴롭고
羈思忍胡寧 나그네 생각 어찌 편히 함 차마 하랴
莊扈吟烏几 장석은 검은 안석을 읊고
王喬想鶴翎 왕교는 학 깃을 생각하였네
浮名幾潦倒 뜬 이름 얼마나 큰비에 거꾸러졌나
亂髮已飄零 어지러운 머리칼은 벌써 나부껴 떨어졌네
滿地江湖在 가는 곳마다 강호 있으니
吾還養性靈 내 돌아와 천성을 기르리라

(『다산집(茶山集)』 권1)

15) 정홍명(鄭弘溟, 1592~1650)

환벽당에서 옛날을 회상하다[環碧堂感舊]

亭臺夷迥壓前溪 누대가 저 멀리 앞내를 압도하니
草樹縈紆匝近堤 풀 나무 얽히어 제방에 두루하네
石縫矮松低拂水 돌은 작은 솔 돌아 나직히 물 떨치고
墻陰苦竹細分蹊 담장은 참대에 그늘져 가늘게 지름길 나뉘었네
隣僧去後收殘卷 이웃 중 떠난 뒤에 남은 책 거두고
社鼓休時聽夕鷄 사직 북 멈출 때 저녁 닭소리 듣네
興廢百年餘勝境 흥폐한 백 년 뒤에 명승이 남았으니
老來淸賞轉生悽 늙어서 감상함에 도리어 처연하여라

(『기암집(畸庵集)』 권5)

환벽당에서 마을 벗들과 중양절 모임을 갖다[環碧堂 與洞友作重陽會]

匝岸楓林照水妍 물가 두른 단풍 숲 물에 비쳐 고우니
湖山詩景九秋天 가을 호산은 모두가 시경이어라
佳辰莫漫欺吾老 좋은 때는 부질없이 날 속여 늙게 마라
頭白猶能棹酒船 머리 희어도 되려 술 실은 배 저으리라

(『기암집(畸庵集)』 권8)

16) 이명한(李明漢, 1595~1645)

환벽당에서 아버지가 이찬의 그림을 보여줄 때 내놓은 운을 잇다[環碧堂 次家尊示李贊畫時發韻]

野闊天疑盡 들 넓어 하늘 끝 없는가 의심스럽고
山空日易傾 산이 텅 비니 해가 쉽게 기우네
相逢俱絶塞 서로 만나 함께 끊어지고 막히니
此別卽長程 이때의 이별이 곧 긴 길이었네
祖席笙歌咽 할아버지 자리에 피리노래 오열하고
官齋枕簟淸 관청 집엔 침구가 깨끗하네
明朝秋葉散 내일 아침 가을 낙엽 흩어지면
何耐獨歸情 홀로 돌아가는 심정 어찌 견딜까

(『백주집(白洲集)』 권5)

17) 이시성(李時省, 1598~1668)

환벽당에서[環碧堂]

春和踏靑節 봄 날씨 온화하면 푸른 풀 걷는 계절
獨遊環碧堂 나 홀로 환벽당에서 노닌다네
水流人亦去 물 흐르고 사람 또한 떠나가니
松竹老蒼蒼 오래된 송죽만 창창하여라

(『기봉집(騏峰集)』 권1)

18) 이은상(李殷相, 1617~1678)

환벽당에서 읊조리다[環碧堂口占]

境似桃源洞 지경이 무릉도원 같으니
川疑白石灘 냇은 백석탄인가 의심하네
林花紅百日 숲 꽃은 백일을 붉게 피고
籬竹綠千竿 울대는 천 줄기가 푸르네
草色平如織 초색은 평평하여 짜놓은 듯
山光秀可餐 산 빛은 빼어나 거둘만하네
登臨撫古跡 등림하여 옛 자취 어루만지니
松下獨盤桓 소나무 아래서 홀로 어정거리네

(『동리집(東里集)』 권1)

19) 오이익(吳以翼, 1618~1666)

환벽당에서 정랑에게 준 시에 차운하다[環碧堂 次贈貞娘]

萬事人間不勝悲 인간의 모든 일 슬픔 남아 있으니
杜娘無復舊容姿 두랑도 다시는 옛날 모습 없다네
相逢環碧春風夜 봄바람 부는 밤 환벽당에서 서로 만나
共說前遊涕自垂 옛 놀음 함께 이야기하니 눈물 절로 흐르네

(『석문집(石門集)』 권2)

환벽당에서 죽선에게 주다[環碧堂 贈竹仙]

謫下人間今幾春 인간 세상 귀양온 지 몇 해나 되었느냐
舊遊偏憶玉河濱 그 옛날 옥하가에서 놀던 일 생각나네
誰知琴酒春樓會 누가 알까, 금주로 춘루에서 만났는데
獨作三淸夢裏身 이젠 홀로 삼청에 꿈속 사람 된 것을

잠꾸러기 신선을 기롱하다[譏仙好睡]

(『석문집(石門集)』 권2)

20) 김창흡(金昌翕, 1653~1722)

환벽당에서[環碧堂]

環碧堂中客　환벽당에 있는 손님
安知非主人　어찌 주인 아님을 알랴
歸依因地勝　돌아와 의지함은 명승이기 때문이요
嘯詠亦天眞　휘파람 불고 읊으니 또한 천진하다네
松竹澄潭會　송죽은 맑은 못에 모아있고
雲嵐瑞石親　구름은 서석산을 둘러있네
雨來添洒落　비가 와서 깨끗함 더하니
吾已岸烏巾　내 벌써 검은 두건 쓰고 거니네

(『삼연집(三淵集)』 권14)

21) 이하곤(李夏坤, 1667~1724)

환벽당에서[環碧堂]

勝地如高士 명승지는 고상한 선비와 같아
同德必有隣 덕이 반드시 이웃에 있는 듯
瀟灑與環碧 소쇄원과 환벽당은
駢列一溪濱 나란히 한 시내 기슭에 어우러져 있네
造物力廣大 조물주의 역량 광대하여
賦形各殊倫 각각 색다른 형상 부여했네
瀟灑品格妙 소쇄원의 품격 기묘하고
環碧擅風神 환벽당의 풍광 빼어나다네

蒼石上盤陀 푸른 돌 위는 울퉁불퉁 반듯하지 않으며
淸潭下漣淪 맑은 못 가운데 물결 잔잔히 이네
揮手弄文漪 손을 휘저어 물결 일으키니
游魚正可親 노니는 고기떼와도 정말 친해지네
回視千竿竹 돌아보니 우쭉 자란 대나무
正立如偉人 곧게 솟아있어 헌칠한 사람 같네
嘯咏恣吾意 휘파람 불어 내 마음 실어보는데
何必問主賓 어찌 반드시 주객을 물으리요
伊昔河西翁 그 옛날 하서옹은
高情出風塵 고고한 정회 속세를 벗어나
杖屨常來往 지팡이에 삼신 신고 항상 오가며
愛此景物新 이곳 경물의 신선함을 좋아하셨네
我來千載後 내가 오랜 세월 뒤에 와서
俛仰跡已陳 우러굽히려니 그 자취 이미 퇴색하였네
生旣不同時 태어난 시기 같지 않으니
欲見亦何因 뵙고자 한들 어떻게 인연되겠나
仰視瑞石山 서석산 우러러보니
如得見公眞 마치 공의 모습 보는 듯하네
作詩題岩間 시 지어 바위 사이에 쓰니
欲以俟千春 천년을 기다리고자 함이네

(『두타초(頭陀草)』 권10)

22) 김신겸(金信謙, 1693~1738)

환벽당에서[環碧堂]

堂名高左海 환벽당 이름 좌해에서 우뚝하니
來往幾賢人 왕래한 어진이 얼마나 될런지
園籬冲霄氣 동산의 죽순 하늘 부딪칠 기운 있고
潭魚得意眞 연못의 고기는 득의함이 참되네
風流松老遠 풍류는 노송과 멀어지고
翰墨芭翁親 한묵은 늙은 파초와 친하다네
偶與山公醉 우연히 산사람들과 같이 취하여
吟欹白紵巾 백포건 비스듬히 쓰고 읊는다네

(『회소집(檜巢集)』 권3)

23) 조자이(趙子以, ?~?)

過松江先生舊居有感志懷仍贈鄭達夫 송강(松江)선생이 거처하신 옛날의 구거(舊居)를 지나면서 느낀 바의 생각을 시(詩)로 읊어 정달부(亭達夫)에게 줌

丞相故墟何處尋 승상(丞相)께서 사신 옛터 어느 곳에 찾을 손가
鳴陽縣郭瑞湖潯 명양(鳴陽) 고을 서호(瑞湖) 위에 그의 유적 남았도다.
淸名直節賢孫繼 맑은 이름 곧은 절개 어진 자손 이어가고
餘韻遺風過客飮 남긴 여운 맑은 유풍 지난 손이 흠모하네.
環碧亭空新易主 비어있는 환벽정자 새 주인이 바뀌었고
棲霞堂在古猶今 그 옛날의 서하당(棲霞堂)이 아직까지 건재하네.
通家小子悲吟地 통가(通家)하는 이 소자(小子)가 찾아와서 읊조리니
老木寒波無限心 늙은 나무 찬 물결에 이 마음이 설레이네.
崇禎後乙未仲冬 趙 子 以 謹稿
숭정(崇禎) 후 을미(乙未)년 11월에 조자이(趙子以) 삼가 이 시를 지음

【식생 현황】

- ㅇ 환벽당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무등산의 현존 식생은 소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림, 편백림, 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낙엽활엽수 혼효림, 억새군락과 아까시나무-매미꽃군락, 희귀식물집단인 끈끈이주걱군락 등 10개 식물군락으로 구분되고 있음.
- ㅇ 따라서 환벽당이 위치한 언덕 주변으로도 이들 수목군이 대체로 군락으로 감싸고 있으며, 원래 환벽당 주변으로는 대나무가 빼곡히 식재되어 있었다고 함.
- ㅇ 현재 환벽당 내에 식재된 수목은 크게 상록교목과 낙엽교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록교목은 소나무와 가문비나무가 전부이며 그 외 대부분 낙엽교목이다. 전체적으로 수량(樹量)은 상록교목이 12주, 낙엽교목이 77주로 교목이 총 89주로 풍부하나, 수종(樹種)은 17종으로 수량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일가문비나무가 3주, 소나무가 9주로 상록교목은 12주이며, 낙엽교목은 느티나무 5주, 매화나무 15주, 모과나무 3주, 배롱나무 9주, 버드나무 2주, 벽오동 12주, 산수유 1주, 왕벚나무 7주, 은행나무 15주, 이팝나무 1주, 자귀나무 1주, 청단풍 2주, 칠엽수 1주, 팽나무 3주로 총 77주가 있음

마. 검토의견 (******)

○ 환벽당을 중심으로 호남시단(湖南詩壇)을 형성하여 한국문학사의 걸출한 불후의 문사들을 배출하고, 당대 명류 문사들과 교류하며 시가문학의 산실과 요람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별서원림임

○ 면앙정 송순은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을 가리켜 한 동네에 3군데의 명승 즉, 一洞之三勝이라 하여 예부터 유서 깊은 명승으로서 시인묵객들이 수많은 시·문을 지어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곳임

○ 환벽당은 정자, 연못을 비롯하여, 증암천(창계천)의 조대(釣臺), 용소(龍沼), 소나무림과 죽림이 환벽당의 당호처럼 푸르름이 고리를 두르듯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고정원으로서 가치가 우수한 호남의 대표적인 누정문화를 보여주는 곳임

바. 지정조사 의견('13.07.18)

<* 문화재위원*>**

1. 문화재 종별 : 명 승
2. 문화재 명칭 : 환벽당 일원
3. 문화재 지정 가치 :
   1) 환벽당은 사촌 김윤제(1501~1572)가 조선 명종 조(1540년대) 초에 자연을 벗 삼아 노년을 보내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별서임. 환벽당은 무등산 북쪽의 증암천 수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양 소쇄원 및 식영정과 함께 일동삼승(一洞三勝)으로 꼽히는 별서원림임.
   2) 환벽당은 담양 식영정과 함께 전라남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가 광주시가 광주광역시로 분리된 후, 전라남도 담양군에 속한 식영정은 명승 제57호로 지정되고 광주광역시에 속한 환벽당은 광주광역시기념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황임.
   3) 환벽당은 정자, 연못을 비롯하여, 증암천 변의 조대(釣臺), 용소, 그리고 수림지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고전문학과 관련된 인문학적 의미가 매우 큰 곳으로서 고정원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한 대상으로 판단됨.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환벽당 배후의 수림지 및 조대, 용소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지정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5. 보호·관리 방안 검토
   지정 후 정밀조사와 정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보존 및 활용계획' 작성이 필요함.
6. 종합의견
   환벽당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별서원림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1. 문화재 종별: 명승
2. 문화재 명칭 : 환벽당 일원
3.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환벽당이 위치한 곳은 무등산 북능의 능선으로 북봉을 거쳐 꼬막재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지맥 중의 하나이며, 사촌 김윤제(1501-1572)가 태어난 충효마을 북쪽 200m지점에 있음. 또한 광주와 담양을 경계로 흐르는 창계천(자미탄)을 사이에 두고 남쪽 무등산에서 북쪽 성산에 이르기까지 산들이 고르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경관적으로 선경을 이루고 있음.
   2) 환벽당 주변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이 있고, 송강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이 있으며, 소쇄공 양산보가 살았던 창암촌이 있으며, 이 마을들 주변으로 소쇄원과 식영정, 독수정,취가정 등이 소재해 있어 이 일대가 조선시대 원림 문화의 중심지역이었음을 알수있음.
      환벽당 반경 1km내에는 최근 천연기념물 제539호로 지정된'충효동왕버들군'을 비롯하여 충효동 도요지(사적 제141호), 시지정문화재 충효동 정려비각, 충장사, 김덕령 생가 등이 있고, 가사문학관이 소재해 있는 등 생태환경이 양호하고 문화자원이 풍부함.
   3) 환벽당과 관련하여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의 승경에 탄복하여 시문을 남겼으나, 특히 조선전중기 이지역문인중 시가문화권의 좌장역할을 하며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구자 역할을 한 송순(1493-15820은 소쇄원과 식영정, 그리고 환벽당을 일컬어 한 동네에 3군데 명승이 있다고 함으로써 이곳을 아름다운 명승지로 노래하였음.
      (瀟灑園息影亭環碧堂以一洞三勝稱之)
4. 연혁유래 및 특징
   1) 환벽당은 평소 자연경관에 관심을 가진 사촌 김윤제(1501-1572)가 조선 명종조 1540년대 초 노년에 자연을 벗삼아 보내고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 건물의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이고 가운데 2칸을 방으로 하여 앞쪽과 오른쪽 을 마루로 깐 변형된 형식임.
   2) 이곳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쓴 제액(題額)이 걸려 있고,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송강(松江) 정철(鄭澈),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조자이(趙子以) 등의 시가 현판으로 걸려있음.
   3) 환벽당의 당호(堂號)는 영천자(靈川子) 신잠(申潛)이 지었는데, 지형이 이처럼 산과 녹수로 둘러있고. 이 당의 전후좌우에 창송(蒼松) 청림(靑林)이 가득하기때문에 당호를 '환벽'이라 하여 이 당의 특징을 나타낸 것임.
      즉, '환벽'이란 이름글자 그대로 이 집의 주위가 모두 푸른빛으로 둘려

싸여 청록일색(靑綠一色)의 승경지를 이루고 있다는 뜻임.
사촌 김윤제가 건립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의 제자였던 송강 정철의 4세손 정수환(鄭守環)이 김윤제 후손으로부터 사들여 현재 연일정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음.

5.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1) 환벽당이 위치해 있는 이 마을의 뒷산은 험난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으며, 또 높지 않고 낮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형국을 지니고 있음. 특히 무등산 정상이 정면으로 바라보이고, 성산(星山)의 좌우에 자리해 있어 아주 뛰어난 승경을 이루고 있음.

2) 환벽당의 초기모습은 소세양(1486-1562)이 지은 “환벽당“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 1653~1722)의 『南遊日記』를 통해 그 당시의 원림의 식물상과 조경수종을 짐작할 수 있고, 김성원((1525-1597)의 “서하당유고“ 에 ”성산계류탁열도”등의 그림이 남아있어 문헌사적으로도 가치를 더해주고 있음.

3)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 빈번히 일어난 사화로 인하여 선비들이 벼슬살이에 환멸을 느끼고 시골로 내려와 경치가 수려한 곳에 누정을 짓고 자연과 벗하며, 문학, 역사, 철학을 논하고 즐기던 조선시대의 고급문화를 형성하였는데, 무등산 일대와 담양 창평을 중심으로 수많은 누정들이 지어졌으며, 환벽당은 담양 소쇄원, 식영정, 송강정, 면앙정 등 그 중 계산풍류와 시가문화를 발전시킨 정자문화의 산실임.

- 사촌 김윤제는 송강 정철과는 외손녀 사위로 인척관계이며, 김윤제(金允悌)가 교유한 사람들은 송순(宋純), 임억령(林億齡), 김인후(金麟厚), 소세양(蘇世讓), 양산보(梁山甫) 부자, 양응정(梁應鼎), 기대승, 김성원, 정철(鄭澈), 고경명(高敬命), 백광훈(白光勳) 등으로, 이들 대부분은 호남사림으로 기묘사화(己卯士禍)와 을사사화(乙巳士禍)를 거치면서 시대의식을 함께 했으며, 왕성한 시단을 형성하였다고 할수 있음.

4) 환벽당 관련 시로는 임억령의 환벽당을 소재로 한 7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24수가 전하고, 송순의 환벽당 시 2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4수가 있으며, 김인후의 환벽당 시 3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1수가 있음.

- 소세양도 김윤제에게 주는 시 2수와 환벽당 시 5수를 남겼으며, 기대승도 <차환벽당송판부운(次環璧堂宋判府韻)> 1수, 정철도 <차환벽당운> 1수, 백광훈도 <환벽당> 1수, 고경명과 권필도 환벽당 관련시를 각 1수, 이밖에도 정홍명 2수, 목장흠 2수, 이은상 1수, 이하곤, 1수, 이명한

1수, 김창흡 1수, 조상건 2수, 양경지 1수, 정민하 1수, 서봉령 1수 등의 시가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환벽당 옆에 취가정을 경영했던 김만식의 시에도 환벽당을 읊은 시가 4수가 있음.

- 환벽당 대량에는 시문이 적힌 두 개의 현판이 걸려있는데, 하나는 임억령의 '환벽당'이라는 시이며, 다른 하나는 조자이(趙子以)의 한(漢)시인 <有感志懷 : 느낀 바 생각을 시로 읊다.>임.

○ **차환벽당운 <次環碧堂韻> 환벽당의 시에 차운하다. –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微雨洗林壑**(미우세림학) / 이슬비가 숲속을 씻고 가니,**
竹輿聊出遊**(죽여료출유) /** 竹輿**(대나무가마)타고 놀러 갈만하네.**
天開雲去盡**(천개운거진) / 하늘이 열리고 구름 또한 걷혔는데,**
峽坼水橫流**(협탁수횡류) / 골짜기의 물은 넘쳐흐르네.**
白髮千莖雪**(백발천경설) / 백발은 천 가닥이 눈빛이고,**
蒼松五月秋**(창송오월추) / 푸른 소나무는 오월에도 가을이네.**
飄然蛻蠉穴**(표연세의혈) / 개미구멍을 홀쩍 떠나가**
笙鶴戲瀛洲**(생학희영주) / 생황과 학은** 瀛洲**를 희롱하네**

○ 次環碧堂韻**(차환벽당운) / 환벽당 운에 차하다 – 송강(松江) 정철(鄭澈)**
一道飛泉兩岸間 **한 줄기 샘물이 양 언덕 사이에 날리우고**
採菱歌起蓼花灣 **여뀌꽃 물굽이에 마름 캐는 노래가 이네.**
山翁醉倒溪邊石 **산 늙은이 시냇가 돌에 취해 누우니**
不管沙鷗自往還 **아무려나 모랫가 갈매기는 왔다 갔다 하는고나**

5) 식생현황으로는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과 굴참나무군락, 대나무림이 빼곡이 들어차 있는데, 특히 건물 뒤편으로 아름드리 소나무와 배롱나무 그리고 건물 오른편에 300여년 매화나무, 건물 앞쪽아래에 위치한 방지형의 전통연못과 수련등의 식생은 명승가치를 더해주고 있음.

6. 지정대상 및 범위

현재 시기념물(광주시 기념물1호)로 지정된 범위(6,608㎡)외에도 충효마을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쪽 좌측의 조대, 용소, 그리고 우측의 산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송림을 포함하고, 환벽당 담장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창계천까지 연계하여 하천변경관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혀 지정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7.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1) 환벽당 들어오는 입구 콘크리트 다리는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음으로 자연스러운 재질로 설치보수하고 창계천의 조대와 용소부분 물은 녹조현상 등으로 경관을 저해함으로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 계류가로 송림,단풍나무,느티나무등에 대해서는 수관정리와 병충해방제등의 수목관리를 해주고 자미탄이란 이름에 걸맞게 배롱나무와 대나무등을 보식할 필요가 있음.
3) 경관적으로 저해를 하는 창계천 주변의 사유지는 매입하는 방안 강구 필요.
4) 환벽당 별서와 본제(本第)가 있는 충효마을과의 소로길 개설(환벽당 서측협문~숲길~성벽~충효마을)등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필요.

8. 종합의견
1) 환벽당 일원은 역사문화적으로나 자연경관적으로 볼 때 명승으로 지정하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으로 명승지정을 적극 추천함.
2) 환벽당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무등산 일대의 호남가단을 형성한 소쇄원과 식영정, 송강정, 면앙정, 독락당, 취가정 등을 연계, 둘레길을 설치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연을 담은 별천지로서 정자문화권의 진가를 발휘할수 있도록 진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1. 문화재 종별 : 명 승
2. 문화재 명칭 : 환벽당 일원
3. 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4. 입지환경 및 역사문화 환경
1) 환벽당은 사촌 김윤제(1501~1572)가 조선 명종 때 후학 양성과 노년 생활을 위해 지은 별서원림임.
2) 환벽당은 광주와 담양을 경계로 하는 자미탄이라 불리는 창계천에 가까이 있으며, 그 앞은 남쪽 무등산에서 북쪽 성산에 이르기까지 푸른 산들이 고리처럼 둘러 있는(環璧)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음.
3) 환벽당은 정자, 연못을 비롯하여, 증암천 변의 조대(釣臺)와 용소 등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음.
4) 환벽당 주변에는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 양산보가 살았던 창암촌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소쇄원과 식영정, 독수정, 취가정 등이 소재해 있음.
5) 환벽당 바로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제539호 '충효동 왕버들군'이 소재해 있음.
6) 환벽당 일원은 주변의 식영정, 소쇄원 등과 함께 시가문화권의 한 축을 이르는 인문학적 의미가 깊은 곳임.

5. 연혁유래 및 특징

1) 환벽당은 사촌 김윤제가 조선 명종조 1540년대 초 노년에 자연을 벗삼아 보내고,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음.

2) 환벽당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쓴 제액(題額)이 걸려 있고,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송강(松江) 정철(鄭澈),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조자이(趙子以) 등의 시가 현판으로 걸려 있음.

3) 환벽당의 당호(堂號)는 영천자(靈川子) 신잠(申潛)이 지었고, 지형이 산과 녹수로 둘러있고, 또 집 주변으로 소나무와 숲, 창송(蒼松) 청림(靑林)이 가득하여 당호를 '환벽'이라 하였음.

6.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1) 환벽당은 나지막한 야산 아래 위치하고 있고, 무등산이 앞을 이루고 성산이 좌우를 받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옛 멋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연못(개울)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음.

2) 환벽당은 담양 소쇄원 식영정, 송강정, 면앙정 등과 한 권역으로 계산풍류와 시가문화를 발전시킨 정자문화의 산실임.

7.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1) 환벽당과 뒷 산, 그리고 주변의 수림지 및 조대, 용소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지정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음.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1) 우선 창계천의 조대와 용소부분 물이 녹조현상 등으로 명승의 경관에 맞지 않으므로 녹조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음.

2) 환벽당 우측의 개인 주택은 매입하여 전반적인 경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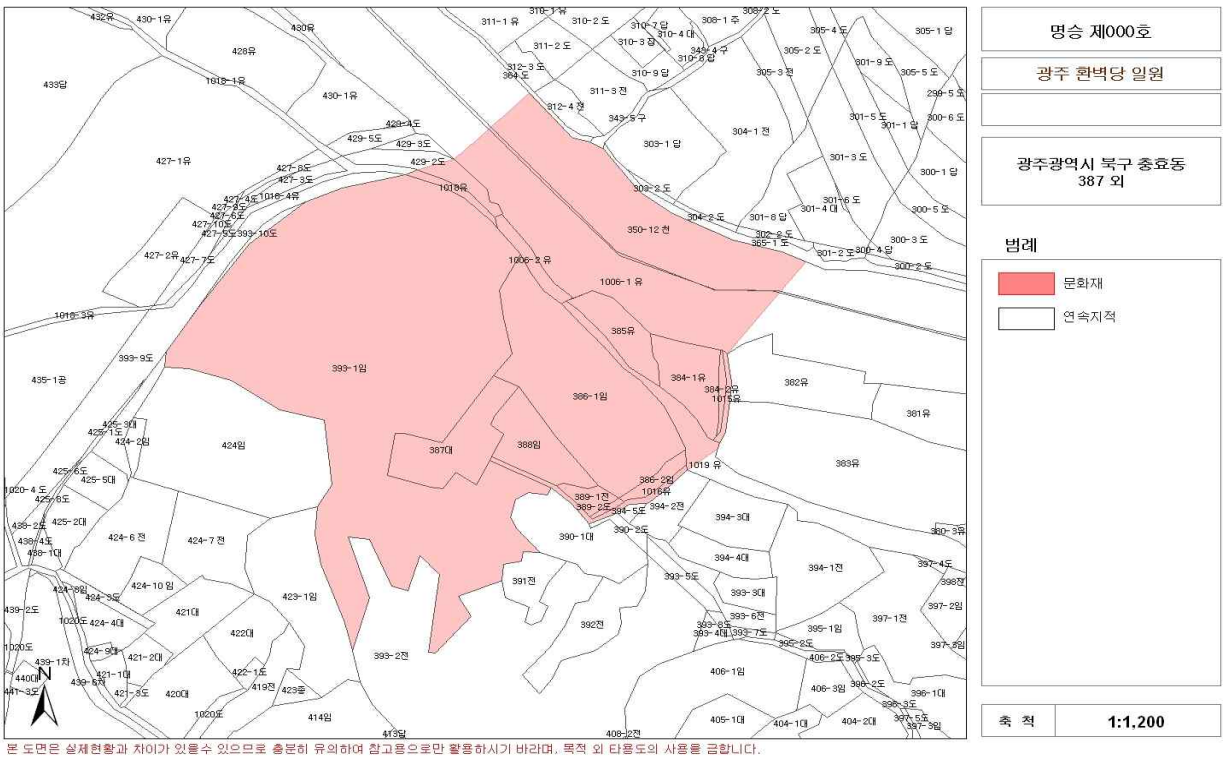
9. 종합의견

환벽당 일원은 자연경관은 물론 역사문화적으로 명승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18필지 / 26,83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1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4-1	유	645	645	한국농어촌공사
2		384-2	유	69	69	한국농어촌공사
3		385	유	536	536	한국농어촌공사
4		386-1	임	3,124	3,124	*** 외 8인
5		386-2	임	155	155	*** 외 8인
6		387	대	975	975	*** 외 10인
7		388	임	764	764	*** 외 8인
8		389-1	전	146	146	*** 외 10인
9		389-2	도	26	26	*** 외 10인
10		393-1	임	13,416	13,416	*** 외 8인
11		429-2	도	417	201	광주광역시
12		1006-1	유	43,095	2,965	국(건설부)
13		1006-2	유	200	200	국(건설부)
14		1015	유	89	89	국(건설부)
15		1016	유	179	179	국(건설부)
16		1018	유	107	107	국(농림부)
17		1019	유	1,507	411	국(농림부)
18	전남 담양군 지곡리	350-12	유	17,026	2,824	국(건설부)
계	18필지				26,832	

아. 문화재 지정구역도 : 18필지 / 26,832㎡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자. 지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및 검토의견

<전라남도 의견>

구 분	지정예고	전라남도 건의안	천연기념물과 검토의견
문화재명칭	**광주 환벽당 일원** (光州 環碧堂 一圓)	**환벽당 일원** (環碧堂 一圓)	**광주 환벽당 일원** (光州 環碧堂 一圓) - 지정예고 명칭 유지
		-지정 예고구역이 광주광역시 북구와 전라남도 담양군 2개 지역임 -명승 명칭부여기준은 아직 없으나, 유사한 '사적 명칭부여기준'(문화재청 예규)에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는 조항(제4조 4)이 있는 바 -이를 원용하여 문화재 명칭부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지정예고 시 광주광역시 북구와 전라남도 담양군 2개 지역에 문화재구역이 지정예고되었음 -지정예고 구역중 증암천 1필지전남 담양군 지곡리 350-12(유)가 포함되었으나, 1필지외 '환벽당' 주요 건물을 포함한 유적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소재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광주 환벽당 일원'으로 지정명칭을 부여함이 맞다고 판단됨 -환벽당 바로 인접한 기지정된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지정명칭 또한 '광주' 지역명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한 바 -'광주' 지역명을 부여하지 않을 시 국민들에게 '담양'지역에 소재하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지정예고 내용 수정	**한 동네에 3군데의 명승** 즉, 一洞之三勝이라 말함		**한 동(증암천,창계천)안에 세 명승** 즉, 一洞之三勝이라 말함

<광주광역시 의견>

구분	예고내용	전라남도 검토의견	광주광역시 검토의견
문화재명칭	**광주 환벽당 일원** (光州 環碧堂 一圓)	-지정 예고구역이 광주광역시 북구와 전라남도 담양군 2개 지역임 -명승 명칭부여기준은 아직 없으나, 유사한 '사적 명칭부여기준'(문화재청 예규)에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는 조항(제4조4)에 있는 바 -이를 원용하여 문화재 명칭부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수정안)지명표기 재검토	-예고구역이 광주광역시 북구와 담양군이지만, 환벽당(정자)과 주변 숲 등이 대부분 광주광역시 북구이고 조대(釣臺) 앞 하천(龍沼)이 행정구역의 경계인 사유로 담양군이 포함되었으나 극히 일부(10.5%)이므로 지역명을 포함하여 '광주 환벽당 일원'이라 하여야 함 -또한, 담양군에 걸쳐있어 명칭에서 '광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면 담양지역을 지정구역에서 제외하더라도 '광주 환벽당 일원'이라 하는 것이 타당함.
지정예고 내용 수정	한 동네에 3군데의 명승 즉, 一洞之三勝이라 말함	-'一洞'을 '한 동네'로 해석하였음 -동네는 '마을','촌락','자기가 사는 집주변'의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음 -여기서는 개개 자연마을의 의미의 동네=洞의 의미가 아니라 '큰 형국'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일동 삼승'으로 불리우고 있음 -따라서 '동네'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동'으로 그대로 표기함이 원의에 더 가까움 →(수정안)한 동안에 세 군데의 명승 즉, 一洞之三勝이라 말함	-지정사유에 대한 의견은 전라남도 의견에 동의함

카. 의결사항 : 원안가결

천기 2013-10-09

9.「청송 주산지 일원」 저수지 수문 및 관로 보수정비

가. 제안사항

「청송 주산지 일원」 저수지 수문 및 관로 보수정비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송 주산지 일원」저수지 수문 및 관로 보수정비를 하고자하는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청송군수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05호 청송 주산지 일원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산41-1
○ 지 정 일 : 2013.03.21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청송 주산지 일원」저수지 수문 및 관로 보수정비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73번지
○ 사업내용 :
- 목적 : 본 사업은 2013년도 위험저수지긴급보수사업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수문보수
* 기존수문 헐기 및 설치
기존수문 깨기 : B=0.9M, T=0.5M, L=26.0M
수문 설치 : (L=26.0M) 1식, (L=23.0M) 1식
* 기존 탄구(집수정) 헐기 및 설치 : (1.0×1.0×1.0) 1.0EA
○ 송수관로 설치
* (D65㎜) L=980.0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 12. 31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

○ 청송 주산지 노후된 수문과 관로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정비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의견)

○ 위험저수지 긴급보수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필요한 사업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천기 2013-10-10

10.「태백 검룡소」내 생태 탐방로 등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신청

가. 제안사항

「태백 검룡소」의 화장실 등 설치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태백 검룡소」내 생태탐방로 및 생태숲 복원공사와 관련 추가로 화장실 등을 개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태백시장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3호 태백 검룡소

○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등

○ 지 정 일 : 2010.08.18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태백 검룡소」내 생태 탐방로 및 생태숲 복원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등

○ 사업내용

<당초>

○ 사업명 : 「태백 검룡소」 내 생태 탐방로 및 생태숲 복원공사

- 생태숲 복원 7,170㎡, 습지 수생식물 관찰 데크 460m, 증식장 , 목교, 야생화 관목 수림대 조성, 기존 탐방로(80m : 560㎡) 복구 등
- 조건부 허가 : 수종, 초화류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사업기간 : 2013.1.28~2013.12.31

<변경>

○ 사업명 : 「태백 검룡소」 내 생태 탐방로 및 생태숲 복원공사

- 사업내용 : 위와 같음
- 추가사업내용
  · 화장실 개축 : 면적 48㎡
  · 광장개보수 : 기본 벽돌 제거 후 부정형 판석 및 잔디식재(509㎡)
  · 해설사 사무소 철거 및 관광안내소 위치변경

○ 사업기간 : 2013.1.28~2013.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경계

라. 검토의견(******)

○ 당해 신청지역은 2013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심의결과 허가 받은 사항으로 “검룡소 주차장 내 편의시설인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의 위치를 변경하여 재설치하고 관광해설사 사무실은 철거하는 사업”임.

○ 현재의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이 노후되어 검룡소의 경관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함. 단, 검룡소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주변경관에 어울리도록 화장실 외관을 정비.

마. 참고자료 (* 의견)**

○ 본 변경허가 신청건은 탐방객들의 편의을 도모하고자 기존 노후된 화장실을 개축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천기 2013-10-11

11.「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내 선착장 조성 및 생태탐방선 운항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내 생태탐방선 운항 및 선착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내 선착장 조성 및 생태탐방선 운항을 위해 신청한 건으로 9차 위원회 심의시 보류된 사안으로 재심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 정 일 : 1966.7.13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생태탐방선 운항 및 을숙도 생태공원 선착장 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5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생태탐방선 운항 : 유소년을 위한 자연생태 환경 체험교육

・ 운항구간 : 을숙도-맥도생태공원 - 삼락생태공원-대저생태공원-구포역-화명생태공원(14km)

・ 운항시기 : 4월~10월(철새도래시기 운항금지)/09~18시/주중 1일2회/주말1일3회

・ 운항속도 : 10노트(18.52km/hr)

・ 선박제원 : 20톤급(L=20m / 선폭(B)=4.5m / 30~50인승)

- 선착장 조성

명 칭	위 치	시설계획	비 고
①을숙도생태공원 선착장	사하구 하단2동 1149-2번지 일원	L=108.0m, B=3.0m	기존 수자원공사 선착장 노후로 신규설치(2013년설치)
②삼락생태공원 선착장	사상구 삼락동 696번지일원	L=68.0m, B=3.0m	철새의 서식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시설이용지구내 설치예정
③대저생태공원 선착장	강서구 대저1동 2437-5번지일원	L=68.0m, B=3.0m	
④구포역 선착장	북구 덕천동 815번지 일원	L=100.0m, B=3.0m	낙동강관리본부 이전 및 재난사고 예방 행정선 선착장조성

※ 을숙도 선착장 조성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수 량	사 업 비
생태탐방선 선착장조성	합 계	-	17억원(설계비 포함)
	잔 교 공 (棧 橋 工)	L=108.0m, B=3.0m	□상부공: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하부공: 강관파일(鋼管 pile)
	진입도교공 (進入渡橋工)	L= 20.0m, B=2.0m	□상부공: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하부공: 강관파일
	부 대 공 (附 帶 工)	이동식 관리동 및 화장실	□관리동(L8.40×L2.80×H3.45m) □화장실(L9.21×L2.50×H3.50m)

○ 사업기간 : 허가일~2014. 6.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정기적인 생태탐방선 운항에 따른 철새서식 여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검토/'13.9.23)

< *** 문화재위원>

○ 낙동강 하구둑 상류의 문화재구역 일대에는 다양한 겨울철새가 도래할 뿐만 아니라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물닭, 쇠물닭, 개개비,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다양한 번식조류들이 수변식생이 잘 발달된 곳에서 번식하고 있음. 이들 중 전자 3종은 겨울철새이지만 최근 텃새화가 진행되면서 번식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번식지 보전이 요구되고 있음

○ 낙동강변 생태공원에 생태탐방선 운항을 위한 소규모 선착장 조성사업은 철새 서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류번식기 선박의 잦은 운항은 조류의 번식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신청서에 제시된 공사시 및 운항시 조류보호대책, 특히 운항기간, 운항횟수, 운항시간, 운항속도, 운항항로, 기타 보호방안을 준수한다면 철새 도래 및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검토사항】

천기 2013-10-12

12.「강릉 경포대와 경포호」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3.01.05 강원도(강릉시) 명승 지정 신청
- '13.10.01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릉시장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江陵 鏡浦臺와 鏡浦湖)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번지 일원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강릉 경포대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고려말 충숙왕 13년인 1326년 지중추부사 박숙에 의해 창건된 누정건물로 안축의 「鏡浦臺新亭記」記文에 “옛날 영랑선인이 놀던 곳이며 정자가 없어 비비람이 치는 날 놀러왔던 사람들이 곤욕스럽게 여겨 작은 정자를 지었다”라고 하여 창건목적을 밝히고 있어 역사성이 높음.
- 또한 창건 당시 이전시대의 주춧돌과 장대석이 발견되어 훨씬 이전시대부터 이곳에 정자형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강릉지역 누정 기록으로 신라 성덕왕대 純貞公과 관련이 있는 임해정과 述朗仙徒와 관련이 있는 한송정을 통하여 현존하는 경포대와 더불어 강릉 지역의 누정문화의 시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임.
- 관동팔경(關東八景) 중 하나인 경포대(鏡浦臺)는 지형・지질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석호인 경포호와 함께 동해안의 빼어난 절승지로 예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다녀간 명승지로서 명사들이 수많은 시·서·화가 있어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높음.

- 경포대와 경포호의 자연풍광을 관동팔경에 비유한 경포팔경과 호해정을 중심으로 한 팔경, 김극기의 강릉팔영 등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곳일 뿐 아니라 풍부한 문학적 소재성 등 문화적, 경관적 요소가 결함된 누정으로 장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 김상성이 그린 관동십경 중의 경포대 그림은 경포대와 경호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부감법으로 그린 것으로, 경호는 경포대를 경계로 하여 내호와 외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호수에는 낚시질을 하는 늙은 어부와 갈매기의 한가로운 모습을 그림. 호수와 바다가 경계되는 곳에는 백사장과 함께 현재의 죽도봉이 그려져 있고, 초당과 경포대 뒤쪽에는 소나무 사이로 꽃들이 만발하여 봄날의 정취를 느끼게 함. 멀리 강문 너머로 보이는 동해 바다에는 아침해가 떠오르는 일출 모습과 함께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돛단배를 그리고 있어 경포호의 옛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음.
- 정철(鄭澈, 1536-1593),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경포대를 관동팔경 중 으뜸이라 했으며, 경포대에 저녁이 되어 달빛이 쏟아지면 하늘, 바다, 호수, 그리고 술잔과 님의 눈동자 등 다섯 개의 달을 볼 수 있는 동해안 제일의 달맞이 명소임.
- 경포대 정자 내에는 율곡 이이가 10살 때 지었다는 「鏡浦臺賦」를 비롯하여 숙종어제시, 조하망의 상량문 등 여러 명사의 시문현판은 인문학적 가치가 높음.
- 강릉 경포대는 고려말 1326년 지추부학사 박숙이 방해정 뒷산의 인월사터에 세웠던 것을 1508년에 강릉부사 한급이 현재 자리로 옮겼고 여러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춘 약 680여년의 역사성을 지닌 누정건축물이며, 경포호와 더불어 탁월한 역사문화적 경관성을 지닌 곳임.
- 강릉 경포대는 16세기 이후 지방 在地士族이 주체가 되는 별당식 정자형태로 전환되는 누정건축 양상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중간적 의미를 갖는 정자로서 건축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강릉경포대와 경포호는 누정시설물과 자연이 상호 보완적 경관요소로서 역사문화적, 자연경관적 가치가 높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의 가치가 뛰어남.
-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동인시화(東人詩話)》 설화 <홍장(紅粧)> 고사는 경포대에서의 홍장과 강원 감찰사 박신과 애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 구전문학의 가치가 높음 곳임.

○ 문화재구역 : 16필지 / 1,038,952.3㎡

○ 문화재관리단체 : 강릉시(강릉시장)

□ 문화재 현 황

○ 강원도 시도유형문화재 제6호 경포대(1971.12.16)

○ 강릉 오죽헌(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 강릉 호해정(시도유형문화재 제47호), 강릉 방해정(시도 기념물 제62호) 등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임.

□ 유래와 전설

○ 강릉 경포대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고려말 충숙왕 13년인 1326년 지중추부사 박숙에 의해 창건된 누정건물로 안축의 「鏡浦臺新亭記」記文에 “옛날 영랑선인이 놀던 곳이며 정자가 없어 비비람이 치는 날 놀러왔던 사람들이 곤욕스럽게 여겨 작은 정자를 지었다”라고 하여 창건목적을 밝히고 있음.

○ 또한 창건 당시 이전시대의 주춧돌과 장대석이 발견되어 훨씬 이전시대부터 이곳에 정자형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강릉지역 누정 기록으로 신라 성덕왕대 純貞公과 관련이 있는 임해정과 述朗仙徒와 관련이 있는 한송정을 통하여 현존하는 경포대와 더불어 강릉 지역의 누정문화의 시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경포대는 16세기 이후 지방 在地士族이 주체가 되는 별당식 정자형태로 전환되는 누정건축 양상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중간적 의미를 갖는 정자로서 건축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강릉 경포대는 경포호를 포함하는 이 일대의 경치를 통칭하는 용어로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전면의 경포호와 그 너머의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특이한 조망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호해정, 방해정, 상영정, 금란정, 경호정 등 다수의 누정과 홍장고사 등 설화와 전설이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적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판단됨.

○ 경포대 정자 내에는 율곡 이이가 10살 때 지었다는 「鏡浦臺賦」를 비롯하여 숙종어제시, 조하망의 상량문 등 여러 명사의 시문현판이 걸려 있음.

○ 경포대와 경포호의 자연풍광을 관동팔경에 비유한 경포팔경과 호해정을 중심으로 한 팔경, 김극기의 강릉팔영 등이 전해오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곳일 뿐 아니라 풍부한 문학적 소재성 등 문화적, 경관적 요소가 결함된 누정으로 장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 경포호는 신생대 제4기 이후에 형성된 자연석호로 동해안의 석호를 대표하는 호수로서 지형경관이 특이하며, 호수 주변의 정자와 주변의 다수 문화재가 함께 어울리는 경승적 가치와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가

□ 입지 현황

○ 경포대를 중심으로 반경 2㎞권 내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정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자들이 경포호 주변에 분포되어 있으며, 경포호 중앙의 월파정을 비롯하여 경포대에서 북동측에 경포호 주변으로 경호정, 상명정, 금란정, 방해정, 석란정, 청랑정, 북서측에는 호해정이 1.5㎞권역 내에 위치하고, 서남측으로 해운정, 선교장이 있으며, 오죽헌이 위치함.

○ 그 외 경포대 뒤쪽 서측의 전충사와 동측의 허난설헌시비, 경포대 해수욕장이 위치하며, 4㎞권 내에는 남측으로 강릉향교가 있음.

○ 경포호로 들어오는 물줄기는 운정천(뒷내), 죽헌천(앞내), 안현천으로 구분되나 현재는 유로를 변경시켜 직접 경포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없는 상태임.

- 운정천은 성산면 송암리 미아리재에서 발원한 물로 송암을 거쳐 태장봉 앞에 있는 명암정 옆으로 돌아 한밭, 행정말, 배다리를 지나 운정동에서 죽헌천과 합류하여 경포호로 들어가는 천이었으나, 지금은 초당 쪽으로 수로의 방향을 변경시켜서 호수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임.
- 죽헌천은 성산면 위촌리에서 발원한 물로 위촌리 마을을 지나 느릅내에서 죽헌 저수지를 이루고 다시 이 물줄기는 죽헌동을 지나 뒤뜰 앞에서 홍제동의 죽헌천과 만나 군정교를 지나 운정동에 와서 운정천과 합류하여 호수로 들어갔으나, 지금은 강문 쪽으로 수로를 변경하였음.
- 안현천은 사천면 방동리 방골 안쪽에서 흘러 산대월리 일희정 앞을 지나 기재, 모새골(저동)을 지나 호수로 들어가는 천이었으나, 지금은 물줄기를 사근진으로 돌려서 바다로 흐르게 하고 있음.

□ 지형지질 현황

○ 지형 현황

- 강릉시의 서측은 오대산, 대관령, 석병산 등 1,000m 이상의 높은 태백산맥에 접하고 있고, 동측으로 세 개의 산악축이 동해바다로 뻗어가며 산악축은 경포천, 섬석천 등 세 개의 하천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충적 평원이 형성됨.
- 북쪽 평원에는 지변 저수지로부터 죽헌천, 경포천을 따라 동해에 유입되고 있으며, 평원 한가운데에 경포호가 있고 주변은 충적토로 대부분 농경지로 되어 있음. 경포호를 중심으로 주변의 지형은 대부분 표고 25m 이하의 낮은 구릉을 형성하고 있음.
- 경포호 북쪽의 지세는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내려 온 구릉이 시루봉(73m)를 지나 경포대(15m)에서 호수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줄기는 호해정 북측의 줄기로 나아가 인월사터에서 방해정을 지나 호수로 들어감.

- 경포대 북쪽 시루봉 기슭을 따라서 이어지는 낮은 구릉지에는 송림이 울창하게 서 있고, 그 아래쪽 능선을 따라서 해운정, 호해정, 금란정, 방해정 등의 문화재가 있음.
- 동해에는 경포대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석호가 북한의 삼일포, 화진포를 비롯하여 남한의 청간정, 청초호, 영랑호 등의 호수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최근 영랑호의 호저퇴적물에 대한 절대연령 측정결과에 의하면, 영랑호는 약 7000년 전에 바다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동해안에 산재하는 석호들도 비슷한 시기에 동해로부터 분리되었을 것임.
- 현재의 경포호수는 둘레 길이가 약 4.3km, 면적이 약 998,000㎡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경포천과 운정천 그리고 안헌천에서의 자연유입이 단절되고 지속적인 퇴적작용의 진행으로 유역의 면적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주변의 지형은 1900년대 초기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호수의 모습은 19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였음. 현재의 호수는 1960년대 이후의 제방축조와 순환도로 건설로 인위적인 경관이 형성되었고, 선교장과 해운정 그리고 호해정 등의 몇몇 누정은 경포호수와의 역사문화경관과 단절이 된 상태임.
- 1911년도와 1918년도의 지형도에서 나타난 경포호는 둘레 길이가 약 7.6km, 면적이 약 1,701,600㎡로 현재보다 1.7배 정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1800년대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크기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경포호가 축소된 원인은 현재까지 대규모의 토목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제방축조사업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적물의 유입에 의한 육지화로 판단됨. 이러한 판단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호수의 깊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당시 1.5 m 정도의 깊이었지만 현재는 1m 수준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퇴적작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1 경포대와 사주

그림 1-2 경포호 북측의 능선

○ 지질 현황

- 경포호가 형성된 것은 신생대 제4기 이후이고, 신생대 제4기의 최종빙기에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100m 정도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종빙기가 끝나고 후빙기에 접어들면서 기온의 회복과 더불어 해수면이 현재의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이 때 빙기 동안에 만들어진 하천은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해수가 하천을 통해 유입되어 대륙 쪽으로 깊은 만이 형성됨. 그리고 하천의 상류에서 운반되어 온 퇴적물과 동해의 연안류에 의해서 운반되어 온 사주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서 경포호와 같은 석호가 만들어짐. 일반적으로 홀로세 이후 형성된 사주는 지속적인 변화에 의해 성장되기보다는 폭풍과 같은 갑작스런 영향에 의해 훨씬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경포호의 형성도 위와 같은 갑작스런 폭풍 또는 해일의 영향이 경포호 주변의 퇴적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함.
- 경포호를 중심으로 북동쪽으로 낮은 구릉지대가 펼쳐지고 남쪽과 남동쪽은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경포대가 위치한 지역의 지질은 고성, 양양 지역과 같은 쥬라기의 대보화강암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임(그림 3-22). 그러나 경포대 주변에서는 화강암이 풍화되어 형성된 토양층이 두껍게 피복되어 있고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어 화강암 노두는 관찰되지 않음. 간간이 산길의 단면에서 화강암이 풍화되어 부서진 암편들이 관찰됨(그림 3-23). 화강암은 주로 석영, 장석들이 주요 구성광물임.

그림 2-1 강릉 지역의 심성암 분포(한국자원연구소, 1995)

그림 2-2 화강암 암편

□ 자연경관 현황

○ 경포대 주변의 송림과 조류상은 상당히 보존 가치가 높으며 특히 경포호와 밀접한 생태계 보호 방안이 필요.

○ 경포대로 이르는 구릉지 주변에는 소나무, 상수리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종과 식재종인 왕벚나무, 히말라야시다, 가이즈까향나무, 배롱나무, 주목, 오죽, 신이대 등이 주로 눈에 띄며, 관목류로 쥐똥나무, 영산홍, 자산홍, 옥향나무 등이 식재율이 높음.

○ 특히 경포대 전면부에는 흉고직경(B) 40~50cm에 이르는 노거목 상수리나무가 주목되며 경포대 중앙 현판 왼쪽의 소나무는 수고 약 10m, 근원직경 60cm의 대경목 위용을 보임. 그러나 히말라야시다 등 이외의 노거목성 나무들은 경포대 개발과 확장 그리고 시설도입과 변모과정에서 지역 고유성을 상실한 채 외래 수종으로 무분별하게 공원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을 상당 부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경포호 북서쪽에는 방해정을 비롯한 금란정, 경포정(경호정), 상영정, 석영정 등의 정자들과 경양사, 전충사 등의 사당이 연접하여 있으며 그 배후 송림의 해발고도는 20~30m 내외의 저산지 구릉이지만 공원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관계로 외연적으로 보이는 교목 상층부 숲의 자연성은 상당히 높음.

○ 그러나 수고 15m, 흉고직경 40~70cm에 이르는 송림의 아교목층은 전무하며 관목층 또한 빈약한 인위적 육성관리에 의해 숲의 세력이 지배되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임.

○ 이 지역 주변에서 발견되는 교목성 수종은 소나무 이외 산 벚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왕대, 전나무 등이 있으며 방해정내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나무는 수고 9m, 근원직경 약 50cm에 이르는 노거목으로 보이며 그밖에 배롱나무, 아까시나무, 감나무, 밤나무, 가중나무 등과 관목층에 뽕나무, 매화나무, 석류, 광나무, 개옻나무, 목단, 무궁화, 개나리, 오갈피나무, 박태기나무, 주목, 회양목, 좀작살나무, 새머루, 족제비싸리, 쥐똥나무, 사철나무, 국수나무, 노박덩굴, 칡, 담쟁이덩굴, 으름덩굴, 족제비싸리, 멍석딸기, 새머루 등이 주로 발견되며 초본층에는 장구채, 이고들배기, 대나무류, 산씀바귀, 나도독미나리, 꿀풀, 마, 원추리, 고삼, 새콩, 쇠뜨기, 머위, 큰까치수영, 들쑥, 쇠스랑개비, 닭의장풀, 방가지똥, 사상자, 등골나물, 우단꼭두서니, 괭이밥, 미역취, 그늘새, 깨풀, 다닥냉이, 마디풀, 쇠무릎, 더덕, 옥잠화,

솔나물, 박, 개맥문동, 우엉 등이 발견됨. 그리고 전충사 주변 수고 9m, 근원직경 70cm의 노송은 수형이 탁월하며 상당히 보존가치가 높은 노거목으로 판단됨. 또한 경양사 앞 습지성 소택지에는 골풀, 미나리, 줄, 비녀골풀, 석잠풀이 우점종을 이루고 있음.

○ 한편 경포대 외곽지역인 선교장 내부에는 비교적 세심히 육성 관리하여 종다양성이 높은 비교적 다채로운 식물상을 보여주고 있음.

○ 교목성 수종으로는 소나무 이외 배롱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잣나무, 말채나무, 굴참나무, 은행나무, 산 벚나무, 참죽나무, 때죽나무, 백목련, 측백나무, 복자기나무, 느티나무 등이 주로 눈에 띄며 아교목성 또는 관목에 해당되는 수종으로는 수국, 공작단풍, 앵두나무, 줄사철나무, 박태기나무, 탱자나무, 오갈피나무, 명자나무, 무화과나무, 능소화, 주목, 홍단풍, 피라칸사, 산수유, 뽕나무, 등나무, 모감주나무, 산철쭉, 금사철나무, 목단, 해당화 등이 식재되어 있음. 그 밖에 초본성 식물로 연꽃, 옥잠화, 창포, 왕원추리, 엉겅퀴, 돌단풍, 미역취, 괭이밥, 줄 등이 활래정 연못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음.

○ 이 중 주목할 만한 수목은 선교장 중심건물 우측 휴게소 부분에 식재된수고 약 25m, 근원직경 120cm의 회화나무로 상당히 보존가치가 높은 독립수로 판단됨.

□ 역사문화경관

○ 강릉 경포대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고려말 충숙왕 13년인 1326년 지중추부사 박숙에 의해 창건된 누정건물로 안축의 「鏡浦臺新亭記」記文에 “옛날 영랑선인이 놀던 곳이며 정자가 없어 비비람이 치는 날 놀러왔던 사람들이 곤욕스럽게 여겨 작은 정자를 지었다”라고 하여 창건목적을 밝히고 있음.

○ 또한 창건 당시 이전시대의 주춧돌과 장대석이 발견되어 훨씬 이전시대부터 이곳에 정자형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강릉지역 누정 기록으로 신라 성덕왕대 純貞公과 관련이 있는 임해정과 述朗仙徒와 관련이 있는 한송정을 통하여 현존하는 경포대와 더불어 강릉 지역의 누정문화의 시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강릉 경포대는 16세기 이후 지방 在地士族이 주체가 되는 별당식 정자형태로 전환되는 누정건축 양상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중간적 의미를 갖는 정자로서 건축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강릉 경포대는 경포호를 포함하는 이 일대의 경치를 통칭하는 용어로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전면의 경포호와 그 너머의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특이

한 조망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호해정, 방해정, 상영정, 금란정, 경호정 등 다수의 누정과 홍장고사 등 설화와 전설이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적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임.

○ 예로부터 시인묵객들과 당대 명류 문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명승지였으며, 수려한 풍경에 대해 읊은 시문이 많아 인문학적 가치가 높음

- 경포대와 경포호의 자연풍광을 관동팔경에 비유한 경포팔경과 호해정을 중심으로 한 팔경, 김극기의 강릉팔영 등이 전해오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곳일 뿐 아니라 풍부한 문학적 소재성 등 문화적, 경관적 요소가 결함된 누정으로 장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 경포대 정자 내에는 율곡 이이가 10살 때 지었다는 「鏡浦臺賦」를 비롯하여 숙종어제시, 조하망의 상량문 등 여러 명사의 시문현판이 걸려 있음.

○ 경포호는 신생대 제4기 이후에 형성된 자연석호로 동해안의 석호를 대표하는 호수로서 지형경관이 특이하며, 호수 주변의 정자와 주변의 다수 문화재가 함께 어울리는 경승적 가치와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가

○ 경포대는 고지리지와 고서화가 남아있어 인문학적 가치도 뛰어남.

≪고문(古文)·고시(古詩)에 나타난 인문가치 현황≫

- 김극기(金克己, ?-1209), 《김거사집(金居士集)》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전함.
- 이규보(李奎報, 1168-1241), <차운공공상인증박소년오십운(次韻空空上人贈朴少年五十韻)>,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후집 권9.
- 이승휴(李承休, 1224-1300), <후죽필병기관한제공(朽竹筆柄寄館翰諸公)>,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 권2.
- 안축(安軸, 1282-1348), <경포범주(鏡浦泛舟)>, <경포신정기(鏡浦新亭記)>, 《근재집(謹齋集)》 권1.
- 이곡(李穀, 1298-1351), <차경포대안근재시운(次鏡浦臺安謹齋詩韻)>, 《가정집(稼亭集)》 권19.
- 백문보(白文寶, 1303-1374), <차경포대운(次鏡浦臺韻)>, 《담암일집(淡庵逸集)》 권1.
- 이집(李集, 1314-1387), <송강릉도렴사서좌랑(送江陵道廉使徐佐郎)>, 《둔촌집(遁村集)》
- 김구용(金九容, 1338-1384), <송김한보생원귀강릉(送金漢寶生員歸江陵)>, 《척약재집(惕若齋集)》 상.
- 이종학(李種學, 1361-1392), <이십일일조음(二十一日朝吟)>, 《인재유고(麟齋遺稿)》
- 유사눌(柳思訥, 1375-1440), <강릉경포대(江陵鏡浦臺)>《?》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전함.
- 정철(鄭澈, 1536-1593), <관동별곡(關東別曲)>, 《송강가사(松江歌辭)》<고문헌 해제>
- 경포에 관한 언급은 12세기부터 있으나, 경포대(鏡浦臺)에 관한 언급은 안

축의 <경포신정기>에도 나와 있듯이, '태정(泰定) 병인(丙寅)' 즉 고려 충숙왕 13년(1326) 이후에 보이고 있음. 지금으로부터 680년 전인 14세기 초엽부터 관동 지방 명승의 하나로 경포대가 일컬어졌음.

- 조선 중종 25년(1530)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강릉대도호부 누정조 '경포대'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음.

부 동북쪽 15리에 있다. 경포는 둘레가 20리이고, 물이 깨끗하여 거울 같다. 깊지도 얕지도 않아 겨우 사람의 어깨가 잠길 만하며, 사방과 가운데가 꼭 같다. 서쪽 언덕에는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 위에는 누대가 있다. 누대 가에 선약을 만들던 돌절구가 있다. 경포 동쪽 입구에 널을 깔아 만든 다리가 있는데, 강문교(江門橋)라고 한다. 다리 밖은 죽도이며, 섬 북쪽에는 5리나 되는 백사장이 있다. 백사장 밖은 창해 만리인데, 해돋이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 매우 기이한 경치이다. 또한 경호(鏡湖)라고 하기도 하며, 정자가 있다. 일찍이 우리 태조와 세조께서 순행하시다가 이곳에 어가를 멈추셨다.

- **안축의 <경포신정기>**를 비롯한 시문이 소개되어 있음. <경포신정기>에는 경포대 건조의 경위가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음.

태정 병인년에 현재 지추부학사인 박숙 공이 관동에서 절월을 잡았다가 돌아와 나에게 말하기를, "강릉의 경포대는 신라시대 여랑 등 사선이 놀던 곳이오. 내가 이 대에 올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으로 참으로 즐거워하였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려. 누대에 정자가 없어서 풍우를 만나면 유람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합디다. 그래서 내가 고을 사람들에게 명하여 대 위에 작은 정자를 지었으니, 그대는 나를 위해 기문을 지어 주시오." 하였다.

이때 경포대의 정자가 지어진 곳은 지금의 방해정(放海亭) 뒷산인 인월사(印月寺) 옛터였으며, 그 뒤 조선조 중종 3년(1508) 강릉부사로 있던 한급(韓汲)이 오늘날의 자리로 옮겨짐. 이후의 중수한 기록은 다음과 같음.

영조 18년(1742) 강릉부사 조하망(曺夏望)
정조 9년(1785) 강릉부사 심명덕(沈命德)
순조 14년(1814) 강릉부사 윤명렬(尹命烈)
고종 10년(1873) 강릉부사 이직현(李稷鉉)
1934년 강릉군수 정연기(鄭然基)
1947년 강릉군수 최병위(崔炳爲)
1962년 강릉시장 한동석(韓東錫)

- 경포대의 전자액(篆字額)은 유한지(兪漢芝, 1760-1834), 해서액(楷書額)은 이익회(李翊會)의 글씨이고, 정자 안의 '제일강산(第一江山)'은 미불(米芾, 1051-1107) 혹은 선조 때 명나라 사신으로 왔던 주지번(朱之藩), 혹은 명필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의 글씨라 전하나 확실치 않음. 그 중 '강산'이라는 두 글자는 지워진 것을 후대 사람이 써 넣은 것이라고 함. 내부에는 율곡 이이(李珥) 선생이 10세 때 지었다는 <경포대부(鏡浦臺賦)>를 비롯하여 숙

종의 어제시(御製詩) 및 유명한 문장가로 알려진 조하망(趙夏望)의 상량문 등 여러 명사들의 글이 걸려 있음.

- **정철(鄭澈, 1536-1593),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경포대를 관동팔경 중 으뜸**이라 했으며, 경포대에 저녁이 되어 달빛이 쏟아지면 **하늘, 바다, 호수, 그리고 술잔과 님의 눈동자 등 다섯 개의 달**을 볼 수 있는 **동해안 제일의 달맞이 명소임.**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영(題詠)조에는 김극기의 <강릉팔영(江陵八詠)>시가 모두 소개되어 있는데, 그가 읊은 강릉의 팔경은 녹균루(綠筠樓), 한송정(寒松亭), 경포대(鏡浦臺), 굴산종(崛山鍾), 안신계(安神溪), 불화루(佛華樓), 문수당(文殊堂), 견조도(堅造島) 등으로, 그 가운데도 경포대가 포함되어 있음.

- **안축의 <경포신정기>**에 나타나 있는 경포대의 경관

경포대에 올라보니 담담하게 조용하고 광활하여 기이한 물건이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은 없고, 다만 멀고 가까운 산수뿐이었다. 앉아서 사방을 돌아보니, 먼 곳의 물은 큰 바다가 끝없이 넓어서 아득한 물결이 산처럼 높고, 가깝게는 경포가 맑고 깨끗하여 바람에 물결이 넘실거린다. 산의 먼 것은 골짜기가 천 겹이나 되어 구름과 노을이 아득하게 보이고, 가깝게는 봉우리가 10리쯤 되어 수풀과 나무가 울창하다. 항상 갈매기와 물새가 나타났다 잠겼다 하며 오락가락 경포대 앞에서 한가하게 논다. 그 봄가을의 연기에 어린 달이 아침저녁으로 흐리고 갬이 때에 따라 변화하여 기상이 일정하지 않으니, 이것이 경포대에서 볼 수 있는 대강이다. … 옛적에 영랑이 이 대에 놀았으니, 반드시 좋아한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경포신정기>에 나타나 있는 경포대의 경관 구성 요소 중 자연 요소로는 경포호수, 동해, 첩첩한 산, 수풀과 나무, 갈매기와 물새 등이 나타나 있음. 자연현상으로는 구름과 노을, 달, 흐리고 개는 날씨 등이 나타나 있고, 관련된 인물로는 영랑(永郞)을 비롯한 신라 때의 사선(四仙)이 드러나 있음.

- 김극기가 강릉팔경 가운데 경포대를 노래한 시

서늘한 경포대에
물과 돌이 다투어 둘러 있네.
버들 언덕엔 푸른 연기가 끼었고,
모래 언덕은 흰눈이 덮인 듯하네.
물고기는 상점을 불며 가고,
새는 교반을 떨어뜨리며 오네.
신선은 아득히 어디로 갔나,
땅에는 푸른 이끼만 가득하네.

虛凉鏡浦臺 水石爭縈廻 柳堤靑煙合 沙岸白雪堆
魚吹象簟去 鳥墮鮫盤來 仙遊杳安往 滿地空綠苔

시에 나타나 있는 경포대의 자연요소로는 물과 돌, 버들 언덕, 모래 언덕, 물고기와 새, 푸른 이끼 등이 있고, 자연현상으로는 서늘한 바람, 푸른 연기, 흰눈 등이 나타나 있다. 인공요소로는 경포대가 등장했다. 관련된 인물로는 신라 때의 사선(四仙)을 연상시키는 신선이 언급되고 있음.

《전설과 설화의 인문가치》

- 설화 <홍장(紅粧)> 고사

;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동인시화(東人詩話)》 권하.

혜숙공(혜숙공) 박신(朴信)은 젊어서 명성이 있었다. 그가 강원도 안렴사로 갔을 때, 강릉 기생인 홍장과 정이 자못 깊게 들었다. 임기가 차서 돌아가게 되자, 강릉부사 조운흘(趙云仡)이 거짓으로 "홍장은 이미 신선이 되어 떠나갔다오."라고 하니, 박신은 슬퍼서 어쩔 줄을 몰랐다. 강릉부에는 그 형세가 빼어나 관동에서 제일이라는 경포대가 있는데, 부사가 안렴사를 그곳으로 안내하여 뱃놀이를 하였다. 부사는 몰래 홍장으로 하여금 예쁘게 꾸미고 고운 옷으로 단장케 한 뒤 따로 놀잇배를 마련하고 늙은 관인 한 사람을 골라 눈썹과 수염을 하얗게 하고 의관을 처용처럼 차려 입게 한 후 홍장과 함께 배에 태웠다.

또 채색 액자를 배에 걸고 그 위에 시를 지어 붙이기를, '신라 태평성대의 늙은 안상이 천년 풍류를 아직 잊지 못하고, 경포대에서 임금의 사신이 놀이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름다운 배에 차마 홍장을 싣지 못했네.'하였다.

그 배가 천천히 노를 저어 포구로 들어와 물가를 배회하는데, 배 안에서 연주하는 거문고와 피리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마치 공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부사가, "이곳에는 예로부터 신선의 유적이 있소. 산꼭대기에는 차를 끓이던 다조가 있고, 여기서 십리 떨어진 곳에는 한송정이 있는데, 그 정자에는 사선비가 있어 지금까지도 그 사이를 신선들이 왕래한다고 합디다. 꽃 피는 아침이나 달 밝은 밤에는 사람들이 더러 그들을 볼 수 있다던데, 단지 바라다 볼 수만 있을 뿐, 가까이 갈 수는 없다고 하지요."하였다.

박신이, "산천의 풍경이 이처럼 빼어나지만 때마침 저에게는 이런 경치를 즐길 만한 정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다. 갑자기 그 배가 순풍을 타고 순식간에 바로 앞에 다다르니 박신이 놀라 말하기를, "신선의 무리임이 분명하구나!"하고는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홍장이었다. 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그러고는 아주 즐겁게 놀다가 연회를 마쳤다.

그 뒤 박신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젊은 시절 부절 쥐고 관동을 살폈는데,
경포대의 좋은 유람은 이제 꿈속의 일이로세.
경포대 아래 난주를 또 띄워 보고 싶지만,
아리따운 기생들 늙은이라 비웃을까 두렵구나

- 설화 <홍장암(紅粧巖)> 전설

출전 : 임영지(臨瀛誌)

홍장은 조선조 초기에 석간(石磵) 조운흘(趙云仡)부사가 강릉이 있을 즈음 부예기(府藝技)로 있었던 여인이었다. 어느 날 강원도 순찰사(巡察使) 박신(朴信)이 강릉을 순방했을 때, 부사는 경호에다 배를 띄어 놓고 부예기 홍장을 불러 놓고 가야금을 켜며 감찰사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미모가 뛰어난 홍장은 그 날 밤 감찰사의 사랑을 흠뻑 받았다. 그 감찰사는 뒷날 홍장과 석별하면서 몇 개월 후에 다시 오겠다고 언약을 남기고 떠나간다. 그러나 한번 가신님은 소식이 없다. 그리움에 사무친 홍장은 감찰사와 뱃놀이하며 즐겁게 놀던 경호에 나와 넋을 잃고 앉아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자욱한 안개 사이로 감찰사의 환상이 나타나 홍장을 부른다. 홍장은 깜짝 놀라면서 너무 반가워 그쪽으로 달려가다 그만 호수에 빠져 죽는다. 이때부터 이 바위를 홍장암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안개 낀 비 오는 날 밤이면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전한다.

- 설화 <한급(韓汲)의 경포대 이건>

출전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함경남도・함경북도・강원도, 평민사, 1989.

조선조 중엽에 강릉부사로 왔던 한급은 풍수지리에 통달하였다. 그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적에 오래 묵은 구렁이와 통정을 하고 있었다. 그 구렁이는 총각 1천 명과 통정을 하면 용이 될 수 있었는데, 이미 999명과 통정을 한 상태였다. 그러한 사실을 알아챈 한급의 스승은 한급에게 통정할 때 구렁이의 여의주를 빼앗아 입에 물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라고 알려주었다. 구렁이와 동침을 하던 한급은 여의주를 빼앗아 입에 물었는데, 급하다 보니 하늘은 보지 못하고 땅만 본 바람에 지리에만 통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급이 강릉부사가 돼서 와 보니, 강릉의 토호들이 모두 서울의 세도가들과 인척관계가 있어서 서울에만 세찬을 보내고, 부사에게는 아는 체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은근히 화가 난 한급은 이 고장을 좀 망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자리로 경포대를 옮겨지었다.

지금 경포대 자리 위에는 강릉 어느 성씨의 시조묘가 있는데, 그 터를 잡을 당시 어느 고명한 중이 와서 터를 잡아 주며, "이 앞에 천년 버섯이 돋아나면 이 터의 명기가 다합니다."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집안의 후손들은 그 일대에 돋아나는 버섯은 깡그리 없애버렸다.

한급이 경포대를 옮겨 지은 뒤, 그 집안의 후손들이 생각해보니 천년 버섯이라고 한 것이 경포대를 두고 말한 것 같았으나 관에서 지은 것이므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뒤 그 집안의 후손은 망하고 말았다.

- 설화 <경포호> 전설

출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2-8 강원도 영월읍, 1986.

지금 경포 호수가 있는 곳이 예전에는 논과 밭이었다. 그 근처인 하람이라는 곳에는 정씨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정씨 집에 도승 한 사람이 찾아와 묵게 되었다. 그 도승은 밤만 되면 나갔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도승의 뒤를 몰래 미행해 보았다. 도승은 지금 경포호의 새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닭이 울 때까지 앉아 있다가 오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무렵 닭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승이 앉아 있던 땅 속에서 금빛 닭이 올라오는 것이었다. 도승은 그곳에 금을 그어 표시를 해놓고는 돌아왔다. 그곳은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금계포란(金鷄抱卵)의 땅이었던 것이다.

도승이 돌아간 뒤, 정씨 집안에서는 도승이 표시해둔 자리에 조상들의 묘소를 이장하였다. 그런 뒤 몇 해 후에 도승이 강릉에 오다가 대관령에 올라 내려다보니 자신이 표를 해둔 곳에 벌써 묘를 쓴 것이 보였다. 화가 난 도승은 한강물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들이부었다. 그래서 그만 호수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고지도 및 회화 인문적 가치》

- 김상성이 그린 관동십경 중의 경포대 그림은 경포대와 경호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부감법으로 그린 것으로, 경호는 경포대를 경계로 하여 내호와 외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호수에는 낚시질을 하는 늙은 어부와 갈매기의 한가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음. 호수와 바다가 경계되는 곳에는 백사장과 함께 현재의 죽도봉이 그려져 있고, 초당과 경포대 뒤쪽에는 소나무 사이로 꽃들이 만발하여 봄날의 정취를 느끼게 함. 멀리 강문 너머로 보이는 동해 바다에는 아침해가 떠오르는 일출 모습과 함께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돛단배를 그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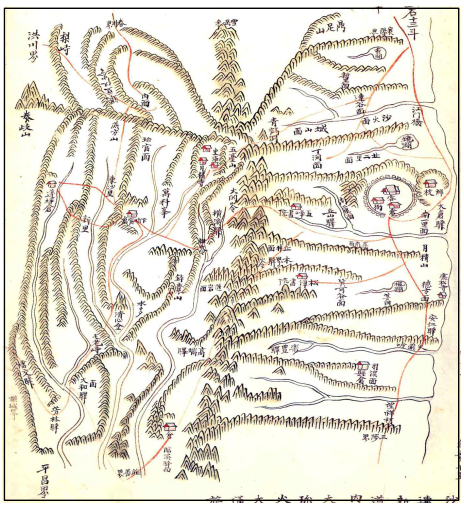


그림 3-1 강릉부 옛 지도(자료:해동지도)

그림 3-2 경포대 옛 그림(자료:관동십경)

마. 검토의견 (******)

【명승적 가치】

- ○ 관동팔경(關東八景) 중 하나인 경포대(鏡浦臺)는 지형·지질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석호인 경포호와 함께 동해안의 빼어난 절승지로 예부터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다녀간 명승지로서 명사들이 수많은 시·서·화가 있어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음.
- ○ 경포대와 경포호의 자연풍광을 관동팔경에 비유한 경포팔경과 호해정을 중심으로 한 팔경, 김극기의 강릉팔영 등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곳일 뿐 아니라 풍부한 문학적 소재성 등 문화적, 경관적 요소가 결합된 누정으로 장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 ○ 정철(鄭澈, 1536-1593),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경포대를 관동팔경 중 으뜸이라 했으며, 경포대에 저녁이 되어 달빛이 쏟아지면 하늘, 바다, 호수, 그리고 술잔과 님의 눈동자 등 다섯 개의 달을 볼 수 있는 동해안 제일의 달맞이 명소임.
- ○ 경포대 정자 내에는 율곡 이이가 10살 때 지었다는 「鏡浦臺賦」를 비롯하여 숙종 어제시, 조하망의 상량문 등 여러 명사의 시문현판은 인문학적 가치가 높음.
- ○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동인시화(東人詩話)》 설화 <홍장(紅粧)> 고사는 경포대에서의 홍장과 강원 감찰사 박신과 애틋환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 구전문학의 가치가 높음 곳임.

바. 지정조사 의견('13.07.18)

<* 문화재위원>**

- ▪ 조사대상지 주소 : 강릉시 경포로 365일원
- ▪ 문화재명칭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 ▪ 문화재지정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 강릉 경포대는 고려말 1326년 지추부학사 박숙이 방해정 뒷산의 인월사터에 세웠던 것을 1508년에 강릉부사 한급이 현재 자리로 옮겼고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춘 700년의 역사성을 지닌 누정건축물이며, 경포호와 더불어 탁월한 역사문화적 경관성을 지닌곳임.

2. 경포대의 이름난 경치는 호수를 전망하는 경포대를 비롯한 방해정,금란정, 상여정, 경호정 등이 남아있고, 경포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주위가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있어 소나무, 벚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 식생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노랑부리저어새, 가창오리 등을 비롯한 각종철새와 텃새의 서식지가 되고 있음.

3. 경포호는 신생대 제4기의 후빙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해수가 하천을 통해 유입되어 대륙쪽으로 깊은 만이 형성되고, 하천의 상류에 운반되어 온 퇴적물과 동해의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사주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형성된 대규모 석호로, 호수자체가 탁월한 경관을 나타내고 있음.

4. 경포대내에는 율곡 이이가 10세때 지었다는 경포대부(鏡浦臺賦)를 비롯하여 숙종의 어제시, 조하망의 상량문등 여러 명사들의 글이 걸려있고, 고려시대 박신과 강릉기생인 홍장과의 사랑이야기가 홍장암과 함께 전해져 내려오며,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이승휴의 동안거사집, 정철의 송강가사등 고문헌 관련 기록등이 전해져 옴으로써 자연경관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 명승적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5. 강릉경포대와 경포호는 누정시설물과 자연이 상호 보완적 경관요소로서 역사문화적, 자연경관적 가치가 높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의 가치가 뛰어남으로 명승으로 적극 추천함.

6. 명칭은 강릉시에서 요청한대로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지정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500m중 300m 까지는 2011년 4월 경포대 및 경포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나머지 200m 는 강릉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임.

<* 문화재위원>**

- 조사대상지 주소 : 강릉시 경포로 365일원
- 문화재명칭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 문화재지정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ㅇ 상기 지역은 강릉시 북동측 해안의 해빈 배후 지역으로, 경포호를 중심으로 북서측에는 상수리나무와 소나무의 노거목 등이 군락을 이루는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남측에는 습지와 경작지로 이루어진 저평지가 분포되어 있음.
   - ㅇ 경포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운정천, 죽헌천, 안현천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유로변경 사업에 의해 경포호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은 없으며, 경포호와 남측의 경작지 사이에 서북서-동북동 방향의 경포천이 흐르고 있음
   - ㅇ 현재 경포호로 유입되는 수로는 경포천 복류수 유입구, 경포호 주변 농경지 배수로, 경포천과 호수의 연결을 위한 3개의 수로, 안현천으로부터 취수한 물의 도수로 등이 있으며, 경포호의 출구는 경호교 지점을 통하

여 경포천으로 연결되어 있음

○ 경호교 부근에 경포호 수위조절용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해의 조위변동에 따라 경포천에서 경포호로 해수와 하천 유출수가 유입됨. 이에 따라 경포호는 기수의 성격을 띰

○ 경포대(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와 경포호 일원은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포도립공원 내에 위치하며, 경포호 주변에는 경포대를 비롯하여, 호해정, 방해정, 상영정, 금란정 등 다수의 누정과 홍장고사 등 여러 설화와 전설이 남아 있는 뛰어난 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있음

2. 연혁・유래 및 특징:

<연혁 및 유래>

○ 경포대는 고려말 충숙왕 13년(1326년)에 방해정 뒷산의 인월사 터에서 지중추부사 박숙 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이후 1508년에 강릉부사 한급이 현재의 위치로 옮긴 후, 7차례의 중수를 걸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경포대는 송강 정철(1536~1593)의 '관동별곡'에서 관동팔경의 하나에 포함이 되었으며, '동국여지승람',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이승휴의 '동안거사집', 안축의 '근재집', 이곡의 '가정집', 정철의 '송강가사' 등 여러 고문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나타남

○ 경포호는 신생대 제4기 최종 빙기 동안의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하천 지역이 후빙기 로 접어들면서 해수면이 현재의 높이로 상승함에 따라 만으로 바뀌고, 이후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퇴적물과 연안류에 의해 운반되어 온 퇴적물 등에 의해 만의 입구에서 해안을 따 라 사주가 성장하면서 석호의 형태로 발전한 것임

○ 이후 석호 주변으로부터의 퇴적물 유입에 의해 석호의 면적이 점차 축소된 것으로 보이 며, 20세기 중후반 들어 유로변경사업과 제방축조, 순환도로 건설,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경포호의 자연적인 석호 지형은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상태임

<지질・지형학적 특징>

○ 제4기 최종빙기 동안에 한반도 주변의 해안 지역에서 일어난 하식작용과 이후 후빙기 동 안의 해수면 상승에 따라 동해안 일대에는 북측으로부터 삼일포, 화진포, 청간정, 청초호, 영랑호 등 경포호와 유사 형성과정을 가지는 석호들이 다수 발달하였음

○ 경포호는 둘레가 약 4.3 km, 면적이 약 998,000 m^2의 규모로서, 현재 동해안에 잔존된 석호 중 가장 큰 규모임

○ 경포호 일대에는 화학적 풍화침식에 약한 화강암(쥬라기)이 넓게 분포하여, 대부분 지역이 토양층으로 이루어진 구릉지와 저평지로 이루어져 있음

○ 이와 같은 경포호 일대의 전반적인 지질과 이에 따른 지형적 특성과는 달리, 경포호 북서측 호안에는 조립질의 화강암 암반이 일부 노출되어 있으며, 이 노두에서 동측으로 약 300 m 지점에는 일명 새바위로 불리우는 '조암(鳥巖)'이 호수면 위에 길이 약40 m, 폭 약 15 m의 규모로 노출되어 있어, 호수경관의 다양성을 높이는 요소가 됨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지정가치>

○ 전술한 바와 같이 제4기 플라이스토세말 동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해수면 변동에 의해 동해안에는 다수의 석호가 형성되었으나, 지속적인 퇴적작용과 20세기 이후 들어서의 인위적인 개발 사업 등으로 자연 상태로 남아 있는 석호는 거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동해안에 잔존된 석호 중 규모가 가장 큰 경포호는 제4기 플라이스토세말과 홀로세 동안의 한반도 고기후 및 고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지형 및 퇴적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짐

○ 이와 함께 경포호를 조망하는 경포대와 그 주변은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며, 자연유산의 미적 가치를 관조하는 선인들의 얼이 이어져 온 장소로서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복합이 되어있는 곳임

○ 따라서 경포대와 경포호는 위와 같은 지질•지형학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보유한 곳임

<근거기준>

○ 경포대와 경포호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명승 지정기준에 명시된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의 가치' 기준을 충족함

4. 지정 대상 및 범위: 경포대와 경포호

5.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경포대와 경포호 주변 반경 500 m로 하되, 2011년 4월에 강원도에 의해 고시된 경포대와 경포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반영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경포호의 수역 범위를 축소시키는 자연적 및 인위적 요소의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호수생태계 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경포호 주변의 자연경관이 일정 부분 훼손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경포대와 경포호의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일대에서의 개발행위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경포호 북서측 호안도로의 폐도 이후, 이 도로의 인위적 요소를 제거하여 호안 주변의 자연상태를 최대한 복원해야 할 것임

○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경포호의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경포호의 지질•지형학적 형성과정과 자연사적 가치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 조사대상지 주소 : 강릉시 경포로 365일원
- 문화재명칭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 문화재지정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포 외 5개소가 지방기념물 제 2호로 지정되어 강릉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경포대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6호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오고 있음. 경포대 주변은 경포호를 포함하는 구역이 경포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경포대 인근에는 해운정. 호해정, 금란정, 방해정 등 누정들이 건립되어 있음. 현재 경포대 주변은 농경지를 비롯하여 촌락, 펜션, 박물관, 관광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2. 연혁・유래 및 특징:

<연혁 및 유래>

○ 현재의 위치에 경포대가 최초로 건립된 것은 중종 3년(1508)이며 그 후 여러 차례 중수·복원되었음. 현재의 형태에 가장 가깝게 건축된 것은 광무 1년(1897)임. 경포호는 조선시대 이후 지속적인 퇴적작용, 특히 1960년대 이후 제방 축조와 순환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유역면적이 크게 축소되었음.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지정가치>

○ 저명한 경관의 조망지점,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호소와 대(臺), 중요한 전설지로서 위락과 관련된 경승지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함.

4. 지정 대상 및 범위: 경포대와 경포호

5.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경포호와 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기념물 제 2호”의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음.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고문헌과 고서화에 나오는 경관을 중심으로 현재의 경관을 재해석하고 이를 경관 복원의 기준으로 삼아 주변의 토지이용을 제어할 필요가 있음. 주변의 동상이나 탑 등을 외부로 이전하고 조경 양식도 전통양식으로 수정해 나가야 함.

○ 경포대에서 경포호를 바라보는 경치의 아름다움은 옛날부터 시인묵객과 화가들의 주요 경승처가 되었음. 비록 예전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바다와 호수를 함께 조망한다는 특별한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음. 앞으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을 예상한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명승 구역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문화재 전문위원>**

- 조사대상지 주소 : 강릉시 경포로 365일원
- 문화재명칭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 문화재지정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 강릉 경포호는 매우 큰 자연석호이며, 경포대는 호의 누정 건축물로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건조물로 역사와 문화, 경관적 가치가 있음

2. 경포대는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이며, 경포호는 기념물 문화재임. 이 지역은 관동의 경관과 역사문화가 잘 어우러진 유서 깊은 곳임

3. 경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연석호로서 경관적 가지가 있고, 경포대는 경포를 조망할 수 있는 누정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는 등,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상호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

4. 지정구역은 도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경포대와 경포지역으로 함
보호물은 향후 활용단계에서 검토 보호구역은 기존 지방문화재에서 관리된 구역을 기본으로 적용

5. 현지조사에서 강릉시 관계자등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승격 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의 확대 등에 우려를 표했으나, 이는 강원도, 강릉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함

6. 경포대및 경포호, 경포해변의 주변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개발 중인 곳이라서 주변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존정비 및 활용

7.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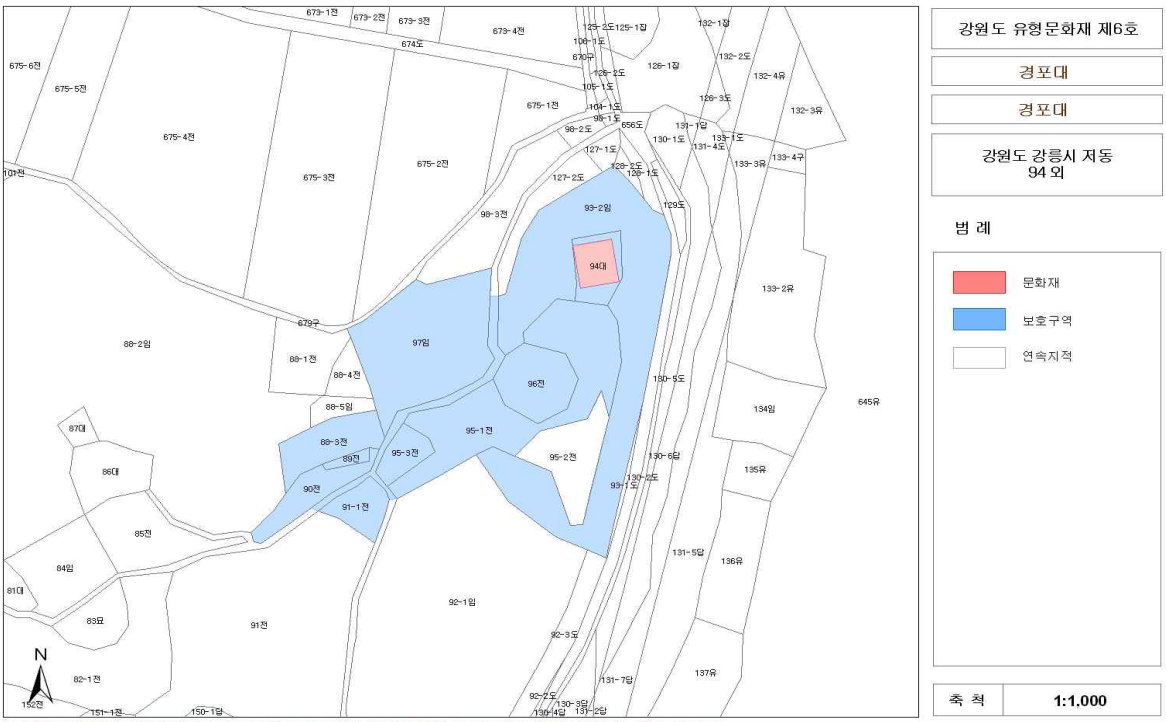
○ 자연석호인 경포, 조망점인 경포대와 그 주변경관은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관동팔경 관련의 인문학적 요소도 함께하는 곳이라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이 있음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16필지 / 1,038,952.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1	강원도 강릉시 저동	88-3	전	503	503	********
2	강원도 강릉시 저동	89	전	69	69	
3	강원도 강릉시 저동	90	전	383	383	강릉시(공)
4	강원도 강릉시 저동	91-1	전	299	299	강릉시(공)
5	강원도 강릉시 저동	93-2	임	3,441	3,441	기획재정부(국)
6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	대	387	387	기획재정부(국)
7	강원도 강릉시 저동	95-1	전	503	503	강릉시(공)
8	강원도 강릉시 저동	95-3	전	69	69	강릉시(공)
9	강원도 강릉시 저동	96	전	383	383	강릉시(공)
10	강원도 강릉시 저동	97	임	299	299	강릉시(공)
11	강원도 강릉시 저동	656	도	14,018	315.3	국토해양부(국)
12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94	유지	165,579	165,579	기획재정부(국)
13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852	유지	78,417	78,417	국토해양부(국)
14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984	유지	282,634	282,634	국토해양부(국)
15	강원도 강릉시 저동	645	유지	233,710	233,710	국토해양부(국)
16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49	유지	271,961	271,961	국토해양부(국)
계	16필지			1,052,655	1,038,9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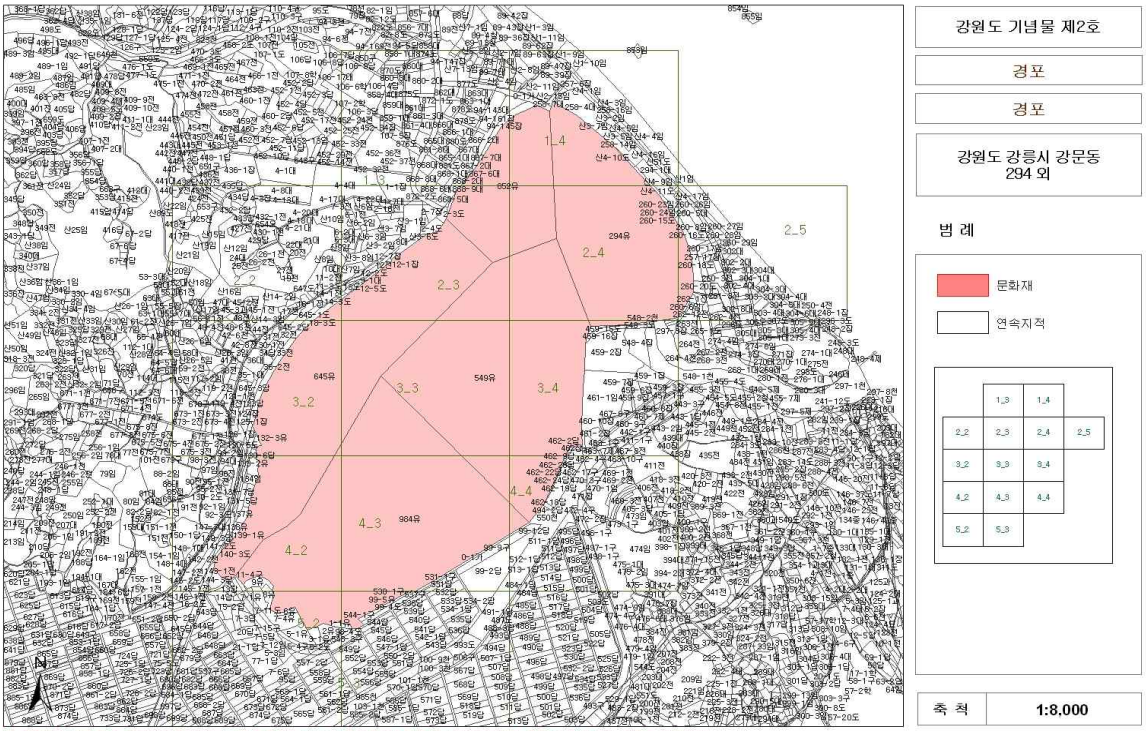
아. 문화재 지정구역도 : 16필지 / 1,038,952.3㎡

□ 경포대(도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구역으로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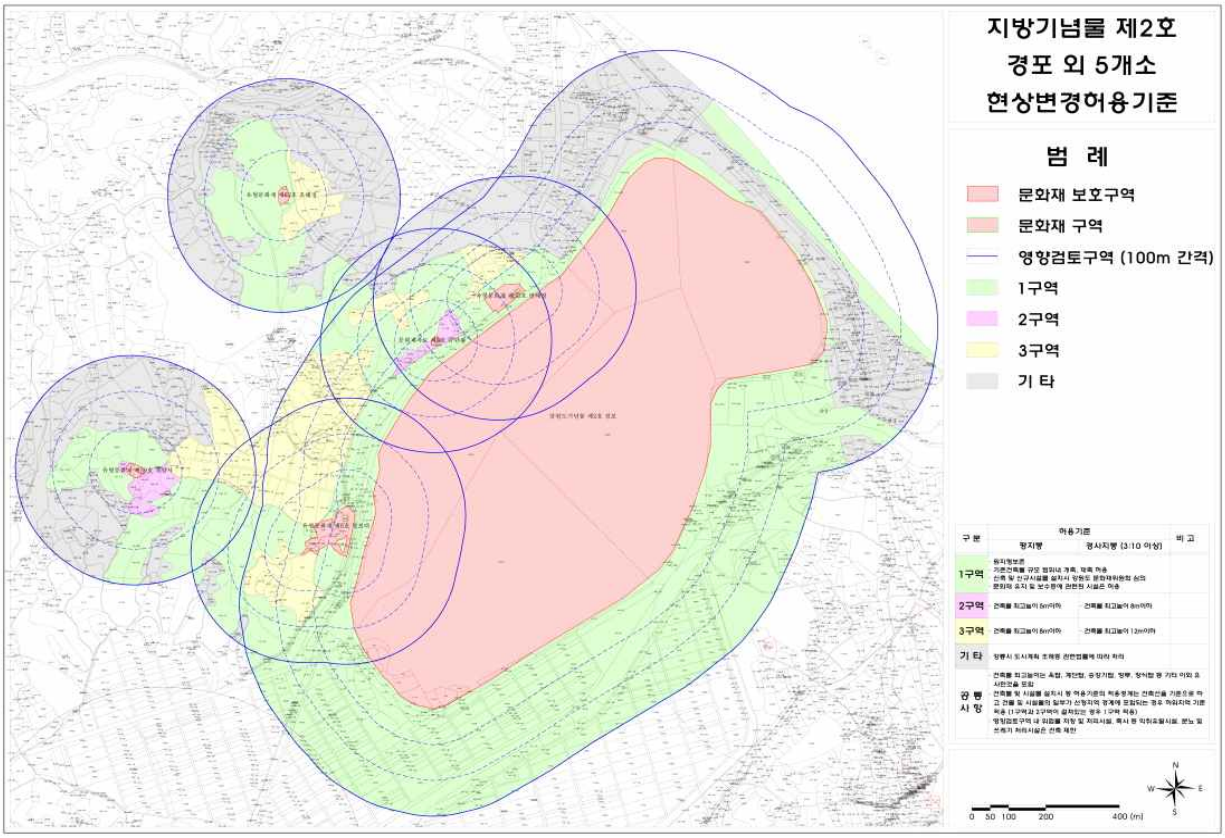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경포호(도지정문화재 지정구역과 동일하게 지정구역 설정)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자. 도지정문화재 경포·경포대· 방해정·호해정·경양사·금란정 6개소 현상변경 허용기준(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구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보존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 신축 및 신규시설물 설치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유지 및 보수 등에 관련된 시설은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기 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선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영향검토구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등 악취유발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축제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 검토의견】**

○ 경포대와 경포호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강원도와 강릉시 의견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지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효율적·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또한 “강원보문화재보호조례 제18조3(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제1항다목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도지사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 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에 따라 경포대와 경포호는 지역의 범위와 개발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점 등은 당해 문화재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야함.(500m →300m)

※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따라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문화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500미터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경포대와 경포호는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에 의해 철저히 문화재 보존관리과 되고 있음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 *** 의견제출】**

<***>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수」가 국가지정문화재(명승)으로 지정되면 동 문화재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나,

○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8조의3(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제1항 제1호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다목 “ ... 도지사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 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300m까지로 설정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명승 지정 대상인 경포대 일원은 1982년 면적 9,474,510㎡에 도립공원으로 용도별 세부기준(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개발제한 규제와 도지정문화재인 경포대 등 7개소와 국가지정문화재 1개소 등 문화재보호법 적용 등 규제를 아울러 받고 있는 곳임

○ 또한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는 현행 법령상 개발이 불가하며, 자연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는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공원법 규제보다 강화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곳이며, 현행 경포대 및 경포호 반경을 포함 주변 문화재인 방해정, 금란정, 이광로 가옥 등 개별 문화재 반경의 중첩에 따라 실질적인 반경 500m로 주변 문화재경관 및 개발규제 효과를 충분이 반영하고 있을 뿐아니라

○ 향후 강릉시에서도 경포대 및 경포호의 명승 지정 이후로도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경관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카.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3-10-13

1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11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 청 자 : ***(강원 평창) ○ 허가사항 : 사육(전시 및 증식) ○ 허가기간 : 2013. 9. 24. ~ 2018. 9. 23. ○ 개 체 수 : 원앙 6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 청 자 : (사)한국산양보호협회장 ○ 허가사항 : 사육(구조개체 재활 훈련 및 증식육) - 강원도 삼척시에서 구조(탈진) ○ 허가기간 : 2013. 10. 11 ~ 2018. 10. 10. ○ 개 체 수 : 산양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 박제 -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성신자연사박물관)	<허가>
	명승 제65호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 신 청 자 : 순천시장 ○ 허가사항 :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의 송광사 매표소 주변정비 현상변경허가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 사업규모 정자보수 정비 : 한식기와 목구조, 지붕 정비 등 배수로 정비 : A구간 높이1.4m*길이18.0m, B구간 높이1.1m*길이 26.0m, C구간 높이0.9m*길이15.0m, D구간 높이0.7m*길이126.0m ○ 허가기간 : 2013.10.16일부터 2014.06.30일까지	<허가>

<table>
<tr><th>구분</th><th>대상문화재</th><th>주 요 내 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4"></td><td>명승 제10호
삼각산</td><td>○ 신 청 자 : **라인(주)
○ 허가사항 : 이동통신용 무인기지국 설치
○ 사업내용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산1-1번지 일원 등
- 규모 : 장비패드 설치 : 20㎡, 이동통신용 소나무형 강관주 설치 : 1개소 높이 15m
○ 허가기간 : 2013.10.21. ~ 2014.02.28.
○ 조건부허가
- 콘크리트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td><td><조건부 허가></td></tr>
<tr><td>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td><td>○ 신 청 자 : 부여군수
○ 허가사항 : 부여읍 구교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 사업내용
- 위치 :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산242-1번지
- 규모: 배수관 설치 L=160m, 차도블록설치 L=120m
○ 허가기간 : 2013.10.21. ~ 2014.12.15.</td><td><허가></td></tr>
<tr><td>천연기념물 제93호 원성 성남리 성황림</td><td>○ 신 청 자 : ***
○ 허가사항 : 소매점 신축
○ 사업내용
- 위치 :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번지
- 규모 : 1층/건면(97.5㎡)
○ 허가기간 : 2013.10.21. ~ 2014.12.31.</td><td><허가></td></tr>
<tr><td>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td><td>○ 신 청 자 : ***
○ 허가사항 : 보호책 보수 및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 사업내용
- 산굼부리 설화 등 안내판 10개소, 억새 보호책 1.7km 교체, 지붕의자 설치 등
○ 허가기간 : 2013. 10. 21 ~ 2013. 11. 30</td><td><조건부 허가></td></tr>
<tr><td>허가사항 변경 허가</td><td>명승 제63호</td><td>○ 신 청 자 : 해인사 주지
○ 허가사항 : 가야산 해인사 원당암 석교설치 및 주변정비 공사
- 위치 :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원당암 주변
- 내용
<table>
<tr><th>구분</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석교(홍예) 설치</td><td>-L=20m, B=7m
-철근콘크리트조</td><td>-L=20m, B=7m
-철근콘크리트조</td></tr>
<tr><td>아스콘 포장공사</td><td>L=191.8m, B=5.4m</td><td>L=191.8m, B=5.4m</td></tr>
<tr><td>주변정비</td><td>-자연석 석축쌓기 L=40.0m
-평균 높이 4.60m</td><td>-자연석 석축쌓기 L=108.6m
-평균 높이 4.60m</td></tr>
<tr><td>교량 외부마감</td><td>화강석 판석마감</td><td>화강석 판석마감</td></tr>
<tr><td>허가기간</td><td>2011.11.5~2013.12.31</td><td>2011.11.05~2014.12.31</td></tr>
</table>
○ 허가기간 : 2011.11.5~2014.12.31</td><td><허가사항 변경 허가></td></tr>
</table>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연산호 이식 연구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4번지 - 사업내용 : 연산호 이식 연구를 위한 용암석 마린블록 6개 설치 및 모니터링 - 허가기간 : 2013.7.22. ~ 2014.12.31. <변경허가 사항> ○ 설치위치 - (당초) 한계창 인근(북위 3313465, 동경 12633927) - (변경) 작은문섬 인근(북위 3313702, 동경 12633990)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건물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번지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12.31. <변경허가 사항> ○ 건축물 면적 및 구조 - (당초) 연면적 207.28㎡, 경량철골구조 - (변경) 연면적 206.88㎡(감 0.4㎡), 철근콘크리트조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 원안접수